Weekly 공감
2012.02.08 NO.145
gonggam.korea.kr

2012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

2012 여수세계박람회 EXPO 2012 YEOSU KOREA

이명박정부 4년

따뜻한 공생발전 더 큰 대한민국

더 큰 대한민국이 보인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4년 정부는 위기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선진일류국가 진입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 경제 위기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글로벌 위상도 크게 높였다. 남은 1년은 우리 경제가 선진국에 안착하기 위한 중요한 시기이다. 정부는 지속적인 공생발전과 중소기업·자영업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2월 25일이면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지 4년이 된다. 출범 직후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를 맞았다. 그 와중에 기상이변, 유가급등 등으로 물가도 크게 올랐다. 설상가상으로 이런 외부적 불안요인들이 확대될 조짐이다. 현 정부 내내 경제위기라는 말이 붙어 다닌 이유이다.

지난 4년 정부는 위기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국제사회에서 선진일류국가로 진입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 왔다. 먼저,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대응을 통해 OECD회원국 중 가장 빠른 경기회복세를 실현하였다. 2010년에는 6퍼센트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대로 복귀하였다.

수출 다변화 노력을 바탕으로 세계 아홉번째로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열었으며, 한·미FTA 등을 통해 경제영토를 세계 3위 수준으로 넓혔다. 지난해에는 유럽 재정위기와 같은 대형 악재에도 일자리를 42만 개 늘리고 2백77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달성하였다. 국가채무비율, 외환보유고, 단기외채비율 등 건전성 지표들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위기대응능력도 크게 향상되었다.

우리 경제의 글로벌 위상 역시 크게 높아졌다. G8이 아닌 나라로서는 처음으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를 이끌어냄으로써 외교역량과 리더십을 과시하였다. 또한 OECD 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여 수원국에서 원조국으로 전환한 첫 국가가 되었으며 2011년에는 구호물자가 들어오던 부산에서 세계원조 총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물론 안심하기는 이르다. 선진국에 안착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유럽 재정위기, 이란 핵문제, 양대 선거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다. 물가안정, 가계부채 연착륙, 청년일자리 창출,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은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현안들이다.

특히 집권 마지막 해인 올해는 악화되는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서민생활 안정과 공생발전에 경제정책의 방점을 두었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서민들과 중소자영업자들이 먼저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민생안정의 근간이 되는 물가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는 한편, 복지예산도 역대 최고수준으로 편성하였다.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지표상 하위소득계층의 소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소득분배지표도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인 공생발전 노력과 중소기업·자영업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정책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명박정부의 남은 1년은 우리 경제가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 선진국에 안착하기 위한 중요한 시기이다. 이명박정부는 마지막까지 원칙과 정도를 지키면서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지금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고 책임 있게 해나갈 것이다. G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Contents

145호
2012.02.08 통권 246호

표지 이야기 | 북극 한기가 몰려와 사방이 꽁꽁 얼어붙기도 했지만, 오는 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봄의 문턱에 들어선다는 '입춘'을 사흘 앞둔 2월 1일 경기도 용인시 한국민속촌에서 전통복장을 한 직원들이 '입춘대길(立春大吉)'과 '건양다경(建陽多慶)'이란 글귀를 붙이고 있습니다. 사진·뉴시스

기획특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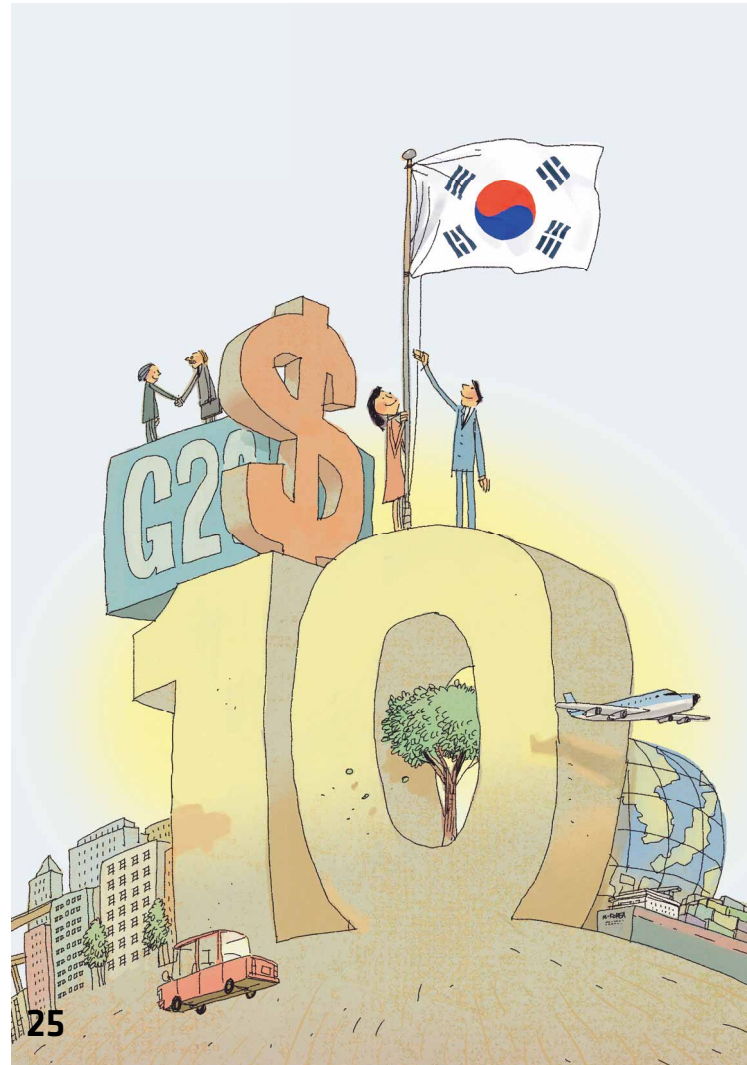
대한민국은 세계로 결실은 서민에게

이명박정부가 만 4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와 더불어 시작된 지난 4년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G20 정상회의, 자유무역협정, 세계개발원조총회,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평화유지군 파병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지평을 글로벌 무대로 확장하고 따뜻한 공생을 모색해 온 시간들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다 함께 더 큰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5

16

42

54

위클리 공감 http://gonggam.korea.kr
발행일 2012.02.08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최광식 **제작협력** 조선뉴스프레스 **인쇄제본** 삼화인쇄 **문의** 02-3704-9668 **정기구독** 02-2625-3294
〈Weekly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Lounge 공감라운지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2월 23일(목) 오전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관심 있게 읽은 기사,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 다양한 독자 의견을 보내주시면 〈Weekly 공감〉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지난호를 읽고

학교폭력 처벌 불가피성에 공감

144호 '가해학생처벌 생활기록부에 남긴다'를 읽고 이제 학교폭력문제가 가벼운 훈계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실정임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합니다. 가해 학생은 대수롭지 않게 하는 장난이라도 당하는 학생은 너무나 괴로운 일입니다. 가해 학생이 수시로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고 별다른 죄의식이 없다면 자질과 도덕성에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폭력행위 사실을 남김으로써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수종 (22·대학생·부산시 북구 화명동)

담양 삼지내 마을 '느림의 미학' 눈길

144호 슬로시티 '전남 담양 삼지내마을' 기사가 단번에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고풍스러운 전통과 자연의 순수함이 조화를 이룬 멋스러운 곳인 것 같습니다. 도심 속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휴식을 취하고 싶은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각박한 현실에서 느림의 미학을 느껴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정책관련 기사 중에서 마음의 청량제가 될 수 있는 좋은 기사를 실어주어 감사합니다.

송재하 (50·회사원·대구시 수성구 만촌1동)

노인과 장애인 위한 따뜻한 손길 고마워

144호 '행복한 노후생활 효자손'과 '장애인에 희망을'을 감동 깊게 읽었습니다. 최근 들어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다양한 혜택이 늘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저소득 노인들을 위해 건강·일자리는 물론 기초노령연금, 장기요양서비스 등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수당, 방문목욕, 간호서비스 등도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도움의 손길이 보는 이의 마음마저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박명선 (62·무직·인천시 서구 석남1동)

김환기 작가 작품 지상전시 흥미로워

전시 칼럼을 재미있게 읽고 있습니다. 143호에서는 '한국의 피카소'라 불리는 김환기 작가의 작품을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평소 미술작품 감상법을 몰라 명화를 봐도 대충 쳐다보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기사에서 작품의 완성 과정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어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내친김에 전시회에 직접 찾아가 작품을 감상해 볼 계획입니다. 이런 전시회는 일정을 잘 몰라 놓치기 일쑤인데 좋은 정보를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김다운 (28·회사원·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독자 인터뷰

"기사와 관련된 일러스트와 사진이 많아 이해하기 쉬워"

임승택 (22·서울 강동구 암사동)

임승택 군은 홍익대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올해 대학 2학년이지만 취업에 고민하는 선배들을 보면 취업난이 남의 일이 아니다. 그래서 가끔 인터넷이나 집에서 오프라인으로 읽게 되는 〈위클리 공감〉을 볼 때면 일자리나 취업 정보부터 챙겨본다고 한다.

〈위클리 공감〉 144호를 보며 인상 깊었던 기사는?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과거에는 기업 중심의 일자리 정책이 대부분이었다면 이번 144호에 소개된 일자리 정책은 기업 중심에서 탈피해 지역공동체와의 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취업자 본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그리고 일자리 자체의 '파이'를 키워주는 창업지원 정책까지 취업난에 대한 대책의 스펙트럼이 넓어져서 좋았습니다. 저와 같은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퇴직 이후 재취업을 원하는 윗세대 분들에게도 유용한 정보였습니다."

그동안 보아온 〈위클리 공감〉의 장점이라면.

"인터넷으로도 보고 집에서 가끔 직접 잡지를 접합니다. 〈위클리 공감〉은 정부 정책에 대해 많은 관심이 없어도 정책에 따른 삶의 변화, 사회의 변화를 명료하게, 그리고 쉽게 파악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특히 기사와 관련된 일러스트나 사진이 많아 기사를 시각적으로 받아들여 이해가 쉽다는 점이 제가 생각하는 장점입니다."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문화, 예술적인 정책에 대한 내용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은 문화, 예술에 관심이 많은 젊은 세대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정책이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될 문화산업을 위해서도 문화, 예술적인 정책에 대해 많이 다루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글·박경아 기자

Puzzle 공감퍼즐

알림

문화체육관광부 대학생 기자단을 모집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체육·관광을 알릴 대학생 기자단 7기를 모집한다. 전국의 대학(원)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글 기자 부문과 동영상 기자 부문으로 나누어 모집한다. 대학생 기자로 선발되면 내년 2월까지 각종 문화행사나 관광·체육 부문의 관심사를 취재해 문화부 공식 블로그와 뉴스사이트에 게재하게 된다. 또한 개인 블로그와 SNS를 활용해 문화부 정책 온라인 홍보 활동도 담당하게 된다. 취재 지원 및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되고 공식 명함도 발급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접수기간 | 2월 10일까지
지원자격 | 전국의 대학(원) 재학생
지원분야 | 글/사진 부문(10명)과 동영상 부문(5명)으로 나누어 선발
활동기간 | 2012년 3월~2013년 2월까지
활동내용 | 매월 최소 2건 이상의 기획·취재 기사 작성, 개인 블로그, SNS 등 문화부 정책 온라인 홍보,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홍보 및 기사 작성
접수방법 | 지원 분야에 따라 제시된 기사·동영상을 제작해 제출서류와 함께 이메일(korculture@hanmail.net) 접수
문의 | culturenori.tistory.com 모집페이지에 댓글로 문의

우수환경도서를 추천해 주세요

환경부와 환경보전협회는 출판사의 우수환경도서에 대한 출판의욕을 고취시키고 국민들에게 환경보전의 지혜를 담은 좋은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많이 제공하기 위해 우수환경도서 공모전을 개최한다. 국민의 환경보전의식 및 실천력 제고에 기여하는 환경 관련 도서를 제안하면 된다. 단 교육기관에서 교육용으로 만든 교과용도서, 전문기술도서, 영리단체에서 홍보용으로 만든 비매품 도서, 이미 우수환경도서로 선정된 도서는 제외된다.

응모일정 | 2월 14일까지
응모자격 | 출판사, 대형문고(서점), 환경전문가, 초·중·고교 교사 등 누구나 가능
응모주제 | 국민의 환경의식 고취에 도움이 되는 환경 관련 도서(정기간행물 포함, 2010년 9월 1일 이후 출간된 도서에 한함) 제안
접수방법 | 환경부(www.me.go.kr)나 환경보전협회(www.epa.or.kr) 홈페이지에서 공모신청서를 다운로드해 작성한 후 심사용 도서 각 9권과 함께 우편 및 방문 접수
접수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497-66 서울상공회의소 동부지소빌딩 6층 환경보전협회 기획사업처 기획홍보과 2012년 우수환경도서 공모 담당자 앞 (우편번호 : 130-805)
결과발표 | 3월 12일(월) 예정
문의 | www.epa.or.kr ☎02-3407-1537

빈칸의 답을 '공감퍼즐 몇 호'라는 제목과 함께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2월 22일 오전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아이폰 〈정책투데이〉 앱에서도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가 로

1. 국가의 지급불능 사태에 대비하고 외환시장 교란 시 환율 안정을 위해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 자산을 말하죠.
3. 거친 땅이나 버려둔 땅을 일구어 쓸모 있게 만든 땅.
5. 물의 온도.
7. 그 학교의 기풍을 드러내기 위해 만든 노래. 학교의 교육 정신, 이상, 상징 같은 것을 담고 있죠.
8. 올해 5월 12일부터 3개월간 세계박람회(EXPO)가 열리는 도시는?

세 로

1. 소나 말을 기르는 곳. 우사.
2. 야구에서 2루와 3루 사이를 지키는 내야수.
3. 도로, 다리, 철로, 인터넷 등과 같은 것을 완성하거나 이어 통하게 하는 것.
4. 소득이 어느 정도로 균등하게 분배되는가를 나타내는 계수.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낮다는 것을 뜻하죠.
6. 지구 대기를 오염시켜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 1985년 세계기상기구(WMO)와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은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라고 선언했죠.

〈Weekly 공감〉 143호(1월 18일자) '공감 퍼즐' 정답

가로 1 수고 3 항수병 5 전문가 6 청송 8 길눈
세로 2 고향가는길 4 병무청 5 전통시장 7 송아지 9 눈꽃

〈Weekly 공감〉 143호 '공감 퍼즐' 당첨자

이길수 · 대전시 서구 둔산3동
이정화 ·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이소정 · 대구시 남구 봉덕1동
한세라 · 서울시 강북구 번3동
한상대 ·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이명박 대통령이 1월 30일 경기도 안양시의 안양·과천 Wee센터를 방문해 학생과 학부모, 상담교사 등과 함께 학교 폭력의 실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다.

"학교장부터 학교폭력 당당하게 밝혀라"

이명박 대통령, 안양·과천 Wee센터 방문… 학생·학부모 등 현장의견 수렴

장기간 학교폭력에 시달려 온 아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함으로써 그 심각성이 드러난 학교폭력. 더 이상 쉬쉬하며 우리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멍들일 수 없다는 절박감에 교육 당국은 물론 대통령까지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시급한 대책 마련에 서두르기보다는 10년, 20년 뒤 대한민국 초·중·고등학교에서 폭력이 없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학교폭력을 감춰서는 안 된다. 학교장부터 당당하게 밝혀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1월 30일 경기도 안양시의 학교폭력 상담신고센터인 안양·과천 Wee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단편적 방법으로는 학교폭력이 해결되지 않는다"며 먼저 학교부터 학교폭력 실태를 당당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곳에서 학생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경험을 들은 이 대통령은 어려움을 이겨낸 학생들을 격려했다. 이어 어려움에 처한 친구들을 돕기 위한 상담활동을 하는 또래 상담학생, 학교폭력 관련 학부모, Wee센터 상담전문교사 등과 함께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의견을 함께 나누었다.

이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학부모, 상담교사 등은 피해 사실을 알리고 싶어도 2차 보복이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찰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제시했다.

"알면서 행동하지 않은 것에 대해 나부터 반성"

비공개로 진행된 피해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한 여고생은 "가해학생은 반성문 쓰고 벌점 받으면 끝이다. 폭행이나 따돌림을 당했어도 이를 신고한 사실이 알려지면 더 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말 못하는 애들이 태반"이라며 경찰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을 둔 학부모도 "피해를 당하는 친구들 대부분은 선생님에게 말하는 것은 꿈도 못 꾼다"고 지적했다.

Wee센터의 한 상담교사 역시 "피해학생들이 보복이 두려워 전학을 가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 교사는 "학교에서는 전문적인 상담이 이뤄지지 않고, 교사들이 학교폭력 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학생들이 신고를 꺼린다"며 " 현재 스쿨폴리스 경찰관이 Wee센터와 연계해 효과를 거두는 경우가 많은 만큼 좀 더 적극적으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해 관여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여러 지적을 들은 이 대통령은 "한 학생이 학교폭력을 당당하게 밝히는 학교를 더 평가해 줘야 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월 2일 교장선생님들과도 만나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현 상황을 명확히 밝히고, 함께 개선해 나가자는 뜻을 전달했다.

이번 대통령의 Wee센터 방문은 학교폭력 문제 대책 수립을 위한 현장의견 수렴의 일환으로, 지난 1월 6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시·도 교육감 간담회와 1월 27일 개최된 교직단체 및 학부모단체 대표 간담회에 이은 세 번째 행보다.

학생에 대한 교육만큼 학부모 교육도 중요

이명박 대통령은 1월 27일 가진 간담회에서 학교폭력 대책 발표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학원폭력에 대해 우리가 알면서도 소홀했고 기피했을 수도 있다. 알면서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것에 대해 나부터 반성한다"며 "학원폭력 관련 대책은 진정성을 갖고 학부모, 학생과 공감대를 이루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와 학부모,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가 아이들에게 보호막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분위기 속에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도 학생·학부모로부터 학교폭력의 실상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 교육에도 발 벗고 나섰다.

이 장관은 2월 1일 대전 유성구 도룡동 대전컨벤션센터에서 학교폭력 피해·가해 경험을 극복한 학생들과 이들의 학부모·상담지도교사 20여 명을 초청해 학교폭력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앞서 1월 18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에서 실시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실'에 참석한 이 장관은 롯데백화점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연했다.

그리고 "사소한 괴롭힘도 학교폭력, 학교폭력은 곧 범죄라는 단호한 인식을 학교와 가정, 사회 모두 제고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며 "학생에 대한 교육만큼 중요한 것이 학부모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월 17일 대한항공을 시작으로 롯데백화점 등에서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을 실시했으며, 앞으로 민간기업·공공기관으로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서 등도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문화, 언어장벽 등 차이로 인해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등의 위험에 빈번하게 노출되는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에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용인서부경찰서는 최근 관내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상담을 실시했다고 2월 2일 밝혔다. 용인서부서 보안계 직원들은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을 직접 방문해 학생들을 상대로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상담을 실시했다. G

글·박경아 기자

문의 교육과학기술부 www.mest.go.kr
학교문화과 ☎02-2100-6642, 학교폭력근절팀 ☎2100-6452

학교폭력 전수조사 결과 교육청·경찰청 공유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초·중·고생 5백58만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월 18일 발표했다.

이 설문조사는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최근 1년간 학생이 당한 학교폭력 피해의 종류와 장소, 교내 일진회 폭력 서클 유무 등에 관해 묻는다.

학교폭력 피해는 ▲말로 하는 협박이나 욕설(명예훼손, 모욕, 공갈, 협박) ▲집단 따돌림 ▲강제 심부름 ▲돈 또는 물건 빼앗김(약취) ▲손, 발 또는 도구로 맞거나 특정한 장소 안에 갇힘(상해, 폭행, 감금) ▲성적인 부끄러움을 갖게 하는 말과 행동, 그리고 강제로 몸을 만지는 행위(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인터넷 채팅, 이메일, 휴대전화로 하는 욕설과 비방(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가운데 복수로 답할 수 있다.

이밖에도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의 구체적 내용과 학교폭력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법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했으며, 설문지의 발송과 회송 과정을 모두 우편으로 실시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우편을 통한 전국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학교폭력이 근절될 때까지 매년 1월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 학교문화과 최민호 사무관은 "각급 학교별로 학생들에게 우편을 발송하고,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회송 우편물을 받게 된다"며 "전수조사 기간을 방학기간으로 설정한 것은 가해·피해·목격 학생이 분리된 상태에서 차분하게 상황을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최 사무관은 이어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시·도교육청, 경찰청과 공유해 학교폭력 대책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설문 내용이 시급한 경우 긴급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성범죄 꼼짝마!”… 연말까지 전국에 안전망

‘SOS 국민안심서비스’ 시범기간 중 13건의 범인검거로 효과 입증

위급상황에 빠진 어린이가 휴대전화·스마트폰·전용단말기를 통해 112와 보호자에게 위치를 알리면 경찰이 바로 출동해 구조하는 ‘SOS 국민안심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된다. ‘SOS 국민안심서비스’는 어린이가 휴대전화나 스마트폰 112애플리케이션, 전용 단말기 버튼을 눌러 보호자나 112에 신고하면 전국 어디서나 경찰이 위치를 파악하고 즉각 출동하는 제도다.

#1 지난해 5월 27일 오후 3시경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의 한 어린이놀이터에서 A(38세)씨가 초등 1학년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있었다. 근처를 지나던 한 학생이 이를 발견,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원터치 SOS’를 작동해 성추행범을 경찰에 신고했다(15:56). 경기경찰청 112신고센터는 즉각 신고자의 위치를 추적해 사건현장을 파악하고 인근 순찰차 4대에 지령을 내렸다(15:56). 순찰자는 도주하는 피의자를 15분 만에 검거했다(16:12).

#2 지난해 6월 16일 오전 10시경 경기 이천에서 서울로 가는 고속버스 안에서 B(19세)씨를 성추행한 C(31세)씨는 도착지인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내리자마자 경찰에 검거됐다. B씨가 스마트폰의 ‘112앱’을 실행해 경찰에 미리 신고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위치 좌표를 확인해 B양의 위치를 확인한 후 터미널서 대기하고 있다가 C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3 지난해 5월 24일 오후 7시44분경 경기 군포시 산본동 ○○아파트 14층 승강기에 갇힌 어린이 2명이 ‘원터치 SOS’로 구조를 요청했다. 이들의 구조요청은 경기경찰청 112신고센터에 접수됐고, 산본지구대는 신속히 현장에 출동해 어린이 2명을 무사히 구조했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지난해 4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해 온 ‘SOS 국민안심서비스’를 지난해 9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 데 이어, 올해 말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들어 어린이 성범죄가 2000년 5백61명에서 2010년 1천1백75명으로 2.1배 증가하고, 유괴사건은 2000년 23명에서 2010년 1백1명으로 증가하는 등 범죄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범죄가 크게 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행안부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시작한 이 서비스는 9개월의 사업기간 동안 13건의 범인 검거와 피해자 구조 실적을 올려 어린이·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새로운 사회안전망’으로 떠오르고 있다.

‘SOS 국민안심서비스’는 통신기기에 따라 ▲원터치 SOS(일반 휴대전화용) ▲112앱(스마트폰용) ▲U-안심서비스(전용 단말기용) 등 3가지로 이뤄졌다. 원터치 SOS는 휴대전화·스마트폰으로 112에 신고해 경찰에 긴급신고와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112앱은 스마트폰의 112앱 터치로 경찰에 긴급 문자신고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U-안심서비스는 전용 단말기 SOS 버튼을 눌러 보호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위치를 알린다.

스마트폰용 112앱의 초기화면. 원터치로 긴급신고가 가능하다. 작은 사진은 U-안심서비스 전용 단말기.

저소득층에 전용단말기 2만대 무료 보급

특히 ‘원터치 SOS’는 스마트폰이나 일반 휴대전화를 가진 초등학생이 이용 가능하고,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해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 서비스가 개시된다. 서비스 신청을 한 초등학생이 위기 상황에서 112 버튼을 누르면, 경찰이 위치를 파악해 출동하게 된다.

일반 휴대폰 사용자 대상의 ‘원터치 SOS서비스’는 그동안 시범사업 지역이었던 서울·경기 일부와 강원도 이외에서 지난해 9월부터는 서울지역 전체 초등학교에서 실시되며 2012년 말까지 전국으로 확대된다.

스마트폰 사용자 대상의 ‘112앱서비스’는 그동안 시범사업 대상이었던 서울지역 미성년자 이외에 지난해 9월부터 경기·강원 지역의 미성년자까지 확대됐다. 2012년 말까지는 전국의 미성년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전용단말기를 사용하는 ‘U-안심서비스’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초등학생 자녀 중 희망자에 한해 무료로 단말기를 지급하고, 이용료를 지원해 취약계층 자녀의 안전을 보호하고 있다.

행안부 생활안전팀 양대성 사무관은 “기존 112신고가 구두로 해야 했던 것과 달리 소리 없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어 범인이 신고사실을 눈치채지 못하는 장점을 갖고 있다”면서 “게다가 빠른 시간 내 신고가 가능해 최근 들어 학부모 등 이용자 신청이 크게 늘었다”고 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1월까지 원터치 SOS는 49만명, 112앱은 1만명, U-안심서비스는 1천명이 가입하는 등 총 50만명이 등록해 이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장애인(19세 미만) 대상 ‘원터치 SOS’도 확대 시행한다. 서울 및 경기·강원 지역에 여성 2천여 명을 포함해 1만여 명이 대상이다. 다만 정신장애 1급 및 6세 이하 영유아는 제외된다.

양 사무관은 “정부는 올해 1월부터 휴대폰이 없는 저소득층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용단말기 2만대를 무료로 보급하고 이용료를 지원한다”면서 “그간 지역별로 운영되던 전국의 112신고센터도 표준화, 이를 통해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다.

행안부는 ‘SOS 국민안심 서비스’의 전국 확산을 계기로 이 서비스를 범죄예방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시범사업 단계부터 범죄예방 시스템으로 국민의 높은 호응을 받으며 출발한 ‘SOS 국민안심서비스’를 2012년까지 전국민의 대표적 사회안전망으로 정착시켜 국민들을 범죄와 안전사고로부터 든든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G

글·오동룡 기자

문의 행정안전부 생활안전팀 ☎02-2100-2902

세계적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을 향해

총리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에 15만 톤급 크루즈선 입·출항 능력 검증 나서

기나긴 갈등의 골을 메우기 위한 의미 있는 행보가 시작됐다.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들어서게 될 제주 해군기지에 15만 톤 크루즈선 입출항이 가능한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이 나선 것이다. 이번 검증을 거치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안보 및 해양주권 보장을 위한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이 한 고비를 넘기게 될 것이다.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들어서게 될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에 15만 톤 크루즈 선박의 입출항이 가능한지에 대해 국무총리실이 검증에 나선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1월 26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설계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맡게 될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15만 톤 크루즈선박 입항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증 활동에 들어갔다.

제주 해군기지는 지난 2007년 4월 노무현정부 시절 강정마을회가 마을총회를 거쳐 유치를 희망해 제주도가 강정마을을 후보지로 선정, 국방부에 건의해 건설지역으로 확정하며 추진되어 왔다. 이명박정부에 들어와 지난 2008년 9월 지역발전을 고려해 15만 톤급 크루즈선이 오갈 수 있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키로 계획을 확정, 국가안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란 두 가지 목적을 충족하기 위한 국책사업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부터 제주도의회를 중심으로 '제주해군기지에 크루즈선 입출항이 힘들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국회 예결위 산하 제주해군기지사업 조사소위가 지난해 10월 '15만 톤 크루즈 선박의 입출항 가능성 여부에 대해 국무총리실 주관하에 국방부와 제주도가 협의토록 하되, 필요시 검증위를 구성·검증토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제주도가 지난해 11, 12월 협의를 했으나 서로 입장 차이가 커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국무총리실이 국회의 권고를 토대로 기술검증위를 구성하게 된 것이다.

제주의회의 박원철 의원(민주당) 등은 해군의 시뮬레이션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배의 선회장과 시뮬레이션에 적용한 풍속 등이 잘못됐다"며 "강정항에는 크루즈 선박 입출항이 사실상 힘들어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이란 정체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국가안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충족을 위한 국책사업

15만 톤급 선박의 전장이 3백40미터가 된다면 선회장은 그의 2배(2L)인 6백80미터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제주해군기지의 크루즈 선회장 길이는 약 5백20미터로 6백80미터에 못 미치기 때문에 민·군 복합형 항만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못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해군은 "당시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과 국방시설 설계기준을 동시에 적용했으며, 항내 정온도, 안전성, 시공 용이성(수심), 경제성(공사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회장 규모를 1.5배(1.5L)로 선정했다"며 "실제 영국의 15만 톤급 크루즈선인 퀸메리호를 대상으로 한 시뮬레이션 결과 1.5L를 적용한 5백20미터의 선회장에서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미의 소국 벨리즈의 벨리즈항, 이탈리아 로마 인근의 치비타베치아항 등 외국 항만의 사례를 확인한 결과 선회장이 1.2~2.0L까지 다양할 뿐 아니라, 지금의 선박 운용기술도 과거보다 짧은 부두를 활용해 정박할 수 있도록 발전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해군은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풍속 적용이 잘못되었다는 주장도 당시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을 적법하게 적용한 결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해군 "현재 설계로 15만 톤급 크루즈 수용 가능"

그동안 일부 지역 주민들의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와 이로 인해 골이 깊어지는 주민 간 갈등, 이러한 점을 전국적 이슈로 부각시키고자 하는 몇몇 단체의 방해 활동 등으로 인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군 당국은 제주 해군기지가 우리 경제의 젖줄인 해상교통로와 제주 남쪽 해역의 해양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수출입 물량의 99퍼센트를 해상수송에 의존하는(의존도 세계 1위) 우리나라로서 제주남방해역 해상수송로 안전통항 보장은 중요하다. 또 제주도 남방해역의 대륙붕에는 석유·천연가스 등 풍부한 지하자원이 매장돼 있다. 국가 안보와 생존권 차원에서 이 지역에 대해 해군이나 해경의 함정이 출동해 항상 감시하고, 각종 안보위협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제주 지역 입장에서는 소득증대,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잠수질환 치료 및 진료시설 무료사용 등 생활수준 향상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대형 항구 신설이 절실했기에,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은 지역 주민과 해군이 서로 상생을 위한 선택을 한 것이다.

지속적인 반대 측 활동으로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는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공사는 2011년 4월 말 부지매입과 어업보상은 백퍼센트 완료하고 전체 예산 가운데 14퍼센트인 1천3백71억 8천만원을 지출했다. 공사 진도는 2011년 목표 33퍼센트에 크게 미달하는 14퍼센트에 그쳤으며, 2012년 1월 말 기준으로 16.1퍼센트의 공사가 진행됐다.

정부는 제주해군기지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하면서 이와 연계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이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G

글·박경아 기자

제주해군기지 육상시설 조감도.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개발되는 제주해군기지 사업 현황

2015년까지 약 9천7백70억원을 투자해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안에 해군기지와 15만 톤 크루즈 지원시설을 확보하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기지 규모 : 49만m^2(매입 29만m^2, 매립 20만m^2)

항만 공사 : 함정 계류 부두 2,400m,
외곽 방파제 2,500m
(함정 20여 척, 15만 톤급 크루즈 2척 수용)

육상 공사 : 연면적 8만815m^2
(지휘/지원시설 32개동 등)

제주해군기지 사업 진행 일지

1993년	해군본부 해군기지 건설 제기
2002년	서귀포 화순항 추진했으나 지역주민 반대로 3년간 유보
2007년 4월	서귀포시 강정마을회 임시총회, 해군기지 유치 결정
2007년 5월	제주도, 강정마을로 후보지 선정 및 국방부에 선정·건의 여론조사(도민 54.3%, 강정마을 주민 56% 찬성)
2007년 6월	국방부, 해군기지 건설지역으로 강정마을 결정 제주도에 통보 노무현 대통령, "무장 없는 평화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필요성 인정
2007년 8월	강정마을회, 임시총회 유치 결정을 뒤집고 반대 입장 표명
2008년 9월	정부, 제주해군기지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개발하는 방안 발표
2009년 1월	국방부, 국방·군사시설 실시계획 승인
2009년 4월	반대 측, 서울행정법원에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승인 무효확인 소송 제기
2010년 1월	항만공사 계약 반대 측, 제주지법에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확인 소송 제기
2010년 7월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무효확인 소송 1심 판결 –반대 측 청구 기각
2010년 11월	우근민 제주지사, 해군기지 수용의사 공식 발표
2010년 12월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확인 소송 1심 판결 –반대 측 원고부적격으로 각하, 효력정지 신청은 기각
2011년 3월	육상시설 기본계획 용역 완료
2011년 4월	김황식 총리, 4·3사건 추모행사 만찬 시 해군기지 갈등문제 해결 표명 해군기지 주변 지역발전계획 수립을 명문화한 '제주도특별법' 개정안 통과
2011년 8월	제주지법, 정부와 해군 측이 반대 주민 등 상대로 낸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수용
2011년 10월	국회 예산결산특위 산하 조사소위, 15만 톤급 크루즈 선박의 입항 가능성에 대한 기술검토 권고
2011년 12월	문화재청, 해군기지 공사부지 내 유적발굴 완료
2012년 1월	총리실, 검증위 구성해 15만 톤급 크루즈선 입출항 관련 검증 중

"미입영 5년차는 올해부터 재검받는다"

김영후 병무청장 "특별사법경찰권 4월 시행… 병역면탈 색출"

2012년도 징병검사가 2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징병검사는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병역이행 형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정밀한 징병검사와 정확한 병역처분으로 병무행정에 대한 국민신뢰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징병검사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김영후 병무청장은 "국민은 병역을 기꺼운 마음으로 이해하고, 사회는 이들에게 격려와 감사를 표하는 세상,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세상"이라고 말했다.

■ 2010년 8월 부임한 김영후(金永厚) 병무청장을 지난 1월 31일 만나 올해 달라지는 징병검사 제도 그리고 '공정병역' 이행을 위해 정부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관해 들었다. 김 청장은 "최근 '공정병역'이 공정사회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자, "근본적으로 사회분위기가 병역을 자랑스러워하고 존중해 줘야 하고 군대에 가면 손해 본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를 위해 정확한 신체검사가 우선돼야 하고 병역 판정에 대한 공정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때 유명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의 병역회피가 사회문제가 됐지만, 최근에는 고위공직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가 많아지면서 병역은 사회지도층의 당연한 의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병역에 대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회지도층의 병역 실천은 일반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어서 중요하다고 본다. 병무청은 1999년부터 '고위공직자 등 병역사항 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본인뿐 아니라 직계비속까지 확인할 수 있다. 이제는 병역을 피하면 스스로 고위공직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됐다. 사회지도층은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므로 그에 맞춰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2012년도 징병검사가 곧 시작된다. 올해 징병검사 대상과 검사시기는 어떻게 되는지요.

"올해 징병검사는 19세가 되는 1993년 출생자와 그 이전 출생자 중 징병검사 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징병검사는 주소지 지방병무청에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대학생·학원생·직장인 등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사람의 경우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원하는 일자를 직접 선택해 검사를 받을 수도 있다."

군 부대 총기사고 발생 등을 보면서 병무청이 징병검사 단계에서 실시하는 심리검사의 중요성이 더욱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 해병대 총기사고처럼 크고 작은 사고를 미리 막기 위한 병무청 차원의 대책을 강도 높게 강구하고 있다. 병무청 심리검사에서는 부적합자의 입영 차단을 위해 1차적으로 징병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1백83문항의 인성검사와 58문항의 인성·인지능력 검사를 실시한다. 중·고교 생활기록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 기록도 심리검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신체검사를 건강한 사람과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으로 구분해 실시한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죠.

"신체검사는 먼저 모든 대상자에 대해 혈액·소변검사, 방사선 촬영, 혈압측정, 신장·체중 측정 등 22종의 기본검사를 한다. 기본검사 결과와 질병상태 문진표 등을 종합 검토해 신체 건강한 사람과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을 구분하게 된다. 신체가 건강한 사람은 바로 수석 징병검사 의사가 최종 검진해 신체등위를 판정해 일찌감치 검사를 마칠 수 있도록 했다.

그렇게 단축된 시간을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에게 할애해 심도 있는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CT·MRI 등을 추가로 실시한 후 신체등위를 판정함으로써 검사결과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 징병검사가 종료되면 '징병신체검사결과 통보서'를 본인에게 교부해 질병이 있는 사람에게는 치료방법을 알려주는 등 무료 건강검진 기회를 제공한다."

그럼 올해부터 달라지는 징병검사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학력제한 폐지의 사회적 분위기 반영과 예외 없는 병역이행 체제 확립을 위해 중학교 중퇴 이하자에 대한 병역 감면제도를 폐지해 199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는 모두 징병검사를 받도록 했다.

다만 올해는 급격한 제도변경으로 인한 병역의무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학교 중퇴 이하자로서 1급에서 4급은 보충역으로 처분토록 했다. 향후 징병검사 결과를 분석해 병역처분 기준 변경여부를 검토하도록 할 것이다. 신체검사 기준도 국민건강 상태를 반영해 종전 키 1백96센티미터 이상을 4급 처분하던 것을 2백4센티미터 이상으로 조정했다. 반면 B형 간염으로 1년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5급 판정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해 의무자 불편을 최소화했다."

올해부터 재(再) 징병검사도 시작된다고 들었습니다.

"재징병검사 제도는 지난 2007년도 병역법 개정으로 신설돼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다. 현역 또는 보충역 처분을 받고 장기간 입영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 동안 신체건강 정도가 변할 수도 있다. 따라서

올해 재징병검사 대상자는 2007년 징병검사를 받고 2011년까지 입영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사진은 안과검사 모습.

5년이 되는 해에 다시 징병검사를 해 병역처분함으로써 병역이행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부정한 병역 면탈(免脫)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병역에 있어서 국민이 가장 원하는 것은 공정함과 투명함일 것이다. 이를 위해 병무청은 여러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7급 경과관찰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병역의무자에게 충분한 질병 치료기간을 주는 동시에 질병상태를 상세히 관찰해 신체등위를 정확하게 판정하려는 것이다. 앞으로 정신병 위장 등 병역면탈 행위는 점점 힘들어질 것이다.

병역면탈 범죄 대부분이 재징병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점에 착안해 '병역처분 변경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징병검사 의사들이 판정을 한 후 다시 한 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는 등 재징병검사를 더욱 철저히 하고 있다. 신체손상 등 병역면탈 사유의 수형자를 병역감면 대상에서 제외해 병역면탈자가 병역감면되는 모순을 해소했다."

병무청이 병역회피 의심자에 대한 확인신체검사제도 도입과 병무직원 '특별사법경찰권' 확보를 추진 중이지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병역면탈 범죄를 예방하고 색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병역면탈 범죄 대응에 제약이 많았다. 병무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확인신체검사 제도'와 '특별사법경찰권'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는 한번 판정을 하면 법원 유죄판결이 없는 한 다시 판정할 수 없다. 앞으로는 병역회피가 의심되면 다시 불러서 재심을 할 수 있다. 특별사법경찰권은 징병검사 현장에서 진단서 위조, 바꿔치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ㅌ특별사법경찰권' 제도는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G

글·오동룡 기자

2012여수세계박람회는 해양을 주제로 한 사상 최대의 엑스포다. 바다와 기후변화, 인류의 삶 등 보편적인 주제의식을 담고 있다. 사진은 완공을 앞두고 있는 여수엑스포장.

해양강국 대한민국·바다의 미래를 본다

지상 최대 해상 쇼 준비… '관람객과 함께 만들어가는 엑스포' 기획

세계인의 축제인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막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해양을 주제로 한 사상 최대의 박람회다. 첨단 IT기술을 활용한 유비쿼터스박람회, 기후와 환경을 생각하는 그린박람회, 공연과 예술의 향기 가득한 문화박람회로 꾸밀 계획이다. 남도의 끝에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해양강국 대한민국과 해양문화의 미래상을 만날 수 있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 EXPO 2012 YEOSU KOREA

"2012여수세계박람회(이하 여수엑스포)는 미래와 지구환경, 바다, 연안 등 특별한 의제를 담고 있습니다. 세계인 모두가 관심을 가지는 주제들입니다. 여수엑스포에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으면 여수엑스포는 놀라운 엑스포, 어느 엑스포보다 성공한 엑스포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지난 2월 1일 여수엑스포장 한국관에서 열린 성공다짐대회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은 여수엑스포의 성공을 기원했다. 인류 보편의 문제에 무게중심을 둔 여수엑스포의 차별화된 전략에 세계인의 관심이 모일 것이라는 예상이었다.

2007년 국제박람회기구(BIE)가 폴란드의 브로츠와프와 모로코의 탕헤르를 제치고 여수를 선택한 이유는 분명했다. 차별화된 전략 때문이었다.

여수는 첨단기술과 산업의 경쟁력을 자랑하는 여느 엑스포와 다른 비전을 제시했다. '해양을 통해 기후변화 등 전 지구적 환경문제의 대안을 모색하고 국제사회의 공존과 협력을 도모한다'는 미래지향적 가치를 들었다.

관람객 참여·체험 극대화한 휴먼엑스포

여수엑스포의 비전은 박람회장의 외양과 이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람회의 주제는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이다. 인류의 미래를 좌우할 바다에 대한 바람직한 접근법을 제시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바다와 연안의 이용을 모색한다. 연안의 개발과 보전, 새로운 자원기술, 창의적인 해양활동을 하위주제로 삼았다.

건물에도 여수엑스포의 특징이 녹아 있다. 엑스포의 주제 의식을 가장 명확하게 표현하는 '주제관'은 바다 위에 건설됐고 바다의 특징을 모티브로 삼아 설계됐다. 주제를 세부적으로 제시하는 부제관들은 '기후환경관', '해양산업기술관', '해양문명관', '해양생물관' 등 해양을 전면에 내세웠다.

여수엑스포의 또 다른 자랑은 '휴머니즘'에 있다. 관람객들을 최우선으로 배려하고 관람객과 함께 엑스포를 만들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여수엑스포는 어느 엑스포보다 관람객들이 참여하는 기회가 많다. 체험형 프로그램도 곳곳에 포진된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등 우리의 첨단 IT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체험을 선사한다는 계획이다.

강동석 여수엑스포 조직위원장은 "지금까지 다른 엑스포는 건축과 신기술을 자랑하는 공간에 그쳤지만 여수엑스포는 콘텐츠와 사람에 배려가 어우러진 휴머니즘 엑스포"라며 "관람객들이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고 남해 바다의 정취가 살아있는 콘텐츠로 멋지고 환상적인 엑스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2012여수세계박람회 기대효과

항목	효과
생산 유발효과	12조2천억원
부가가치 창출효과	5조7천억원
고용창출	7만9천명
관람객	8백만명
관람객 소비지출	1조2천4백억원

자료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볼거리가 풍성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여수엑스포만의 콘텐츠가 즐비하다. 세계 최대의 파이프오르간인 '스카이타워', 세계 최대의 디지털갤러리인 EDG, 독창적인 해상문화공간인 빅오, 국내 최대의 아쿠아리움 등이 대표적이다. 문화의 향기도 드높다. 모두 8천 회의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지상 최대의 쇼라 해도 손색이 없다.

준비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엑스포장의 건설은 93퍼센트가량 완성됐다. 2월 말이면 완공되고 3월 말이면 모두 세부 작업이 마무리된다. 교통과 숙박 등 인프라 확충도 순조롭다. 목포–광양 고속도로, 순천–여수 국대도 17호선, 광양–여수 여수산단진입도로, 이순신대교가 5월 전에 열린다. 숙박은 여수 시내는 물론 주변의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남해안 해양레저·관광 산업 발전의 기폭제

박람회장 건설이 완료되면 대규모 예행연습을 실시할 예정이다. 3회에 걸쳐 20만명이 참여한다. 이를 통해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해 보완한다. 박람회 운영체계와 서비스도 구축한다.

엑스포가 끝난 후에도 엑스포는 여수와 남해안 일대의 발전에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엑스포를 위해 확충된 SOC와 엑스포 시설을 활용해 해양레저·관광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박람회장을 종합 해양레저관광 클러스터로 조성해 남해안선벨트 사업의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강동석 여수엑스포 조직위원장은 "여수엑스포는 국가의 위상이 걸려 있고 세계인이 주목하는 행사"라며 "세련되고 세심하게 준비를 마무리해 국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축제로 만들 것"이라고 다짐했다. G

글·변형주 기자

여수엑스포는 바다를 테마로 한 다양한 전시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풍성한 볼거리와 함께 해양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다는 목표다. 사진은 국내 최대의 아쿠아리움인 아쿠아밸리.

세계 최대의 전자 회랑인 엑스포디지털갤러리(왼쪽), 해양생물관 등에서도 바다의 신비를 만끽할 수 있는 전시물들을 만날 수 있다.

전시관 20여 개… 미래의 바다를 즐긴다

"세계 최대 파이프오르간 등 3대 명물만 봐도 본전 뽑는 셈"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주제다. 박람회장은 바다와 접해 있다. 바다는 박람회장의 앞마당 노릇을 하며 푸르게 넘실댄다. 20개의 전시관은 미래의 해양과 우리의 삶을 조망한다. 세계 최대의 파이프오르간 등 개성 넘치는 구조물이 시선을 붙든다. 바다를 꿈꾸는 문화예술 공연이 곳곳에서 관객을 만난다.

2012여수세계박람회(이하 여수엑스포)에는 20여 개의 전시관이 있다.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음은 물론이다. 그 가운데 외형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건물은 주제관이다. 주제관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바다라는 테마를 적극적으로 표현했다. 먼저 바다 위에 지어졌다는 점이 매혹적이다. 바다 속으로 기둥을 박고 그 위에 건물을 올렸다. 세계 최초의 해상전시관이다.

주제관은 여수엑스포의 주제정신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전시 테마는 '2050년 인류와 해양의 공존'이다. 바다의 신비와 가치를 알려 바다에 대한 인식을 환기하고 바다와 상생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 건물 2층의 OCBPA(Ocean and Coast Best Practice Area) 전시관에서는 세계 최고의 해양 정책과 기술, 노하우, 제품 등이 관람객을 맞는다. 전문 해설사의 시연과 세미나 등을 통해 이해를 돕는다. 전통적인 하드웨어 중심의 전시가 아닌 소프트웨어 중심의 프로그램형 심층 학습을 시도하는 셈이다.

잠수정 타고 오대양을 누비는 영상체험

한국관은 태극을 형상화한 전시공간이다. 유려한 곡선을 통해 육지와 바다, 채움과 비움의 미학을 건축적으로 표현했다. 한국관의 주제는 '한국인의 바다 정신과 해양 역량'이다. 바다와 어울려 살아온 우리의 문화와 역사, 해양 연구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준다. 가장 큰 볼거리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돔영상이다. 거대한 돔 화면으로 우리 바다의 아름다움과 해양 역량을 담은 영상을 만날 수 있다.

5개의 부제관도 빼놓을 수 없는 명소가 될 전망이다. 기후환경관, 해양산업기술관, 해양문명관, 해양도시관, 해양생물관 등 여수엑스포의 주제의식을 세분화해 전시한다. 기후환경관은 기후조절자로서의 바다를 조명한다. 남극의 눈보라와 북극의 빙하를 체험하는 등 특별한 재미를 맛볼 수 있다.

해양문명관은 바다를 벗삼은 인류의 정신문화와 문명을 한눈에 보여준다. 폴리네시아인들의 바다에 대한 도전정신을 상징하는 카누, 길이 22미터, 폭 8미터의 난파선, 세계 해양문명의 발전사를 담은 멀티 영상을 즐길 수 있다.

바다에 건설될 미래의 도시가 궁금하다면 해양도시관을 방문할 일이다. 입구에 설치된 수중터널부터 호기심을 자극한다. 바다 위를 떠다니는 도시인 해중도시와 이 도시를 구성하는 에너지빌딩, 바다 속 녹색도시인 해중리조트, 캡슐형 잠수 주택 등 상상력 넘치는 볼거리를 만끽할 수 있다.

해양생물관은 갯벌과 바다 생태계를 보여준다. 특히 바다 생태계 전시는 독특하다. 잠수정을 타고 세계의 바다 속을 여행하는 듯한 구성이다. 잠수정은 여수를 떠나 제주를 거쳐 남극을 경유해 생물의 천국인 갈라파고스와 페루-칠레 해구를 지난다.

여수엑스포에는 '빅3 볼거리'가 있다. 다른 곳에는 없는 여수엑스포만의 자랑거리들이다. 김근수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이 "이 세 가지만 봐도 본전은 뽑는 셈"이라고 할 정도다. 다목적 연출공간인 '빅오(Big-O)', 세계 최대의 파이프오르간인 '스카이타워', 세계 최장의 전자 화랑인 '엑스포디지털갤러리(EDG)'가 그것이다.

해상공연장에선 해외 수상공연팀 쇼 기대

'빅오'는 회전관람차를 닮은 구조물을 중심으로 구성된 해상문화공간이다. 닫힌 공간에서 벗어나 실내에서 구현할 수 없는 대형 이벤트가 열린다. 둘레 45미터의 거대한 원형 구조물은 대규모 이벤트와 문화행사의 중심이다. 대표적인 '쇼'는 뉴미디어쇼다. 원형 구조물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면서 워터스크린이 생기는데 여기에 분수, 불꽃, 영상, 조명이 어우러진다.

해상공연장도 특이하다. 이 공연장은 수면 위아래로 움직인다. 필요에 따라 떴다 가라앉았다 하면서 독특한 '해상쇼'를 연출한다. 바다 생물들을 캐릭터화한 출연진이 현란한 퍼포먼스를 펼칠 계획이다. 야간에는 메인 행사 중 하나인 '수상공연페스티벌'이 열린다.

스카이타워는 산업 폐기물을 활용한 세계 최대의 파이프오르간이다. 시멘트를 저장하는 2개의 '사일로'로 하프 모양의 거대한 악기를 만들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소리를 내는 파이프오르간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됐다. 5대에 걸친 독일의 파이프오르간 명가인 '헤이

오르겔바우'가 제작했으며 피아노(88음계)에 버금가는 80음계를 연주할 수 있다. 관람객도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오르간 내부에는 체험이 가능한 해수담수화 시설이 설치되고 옥상은 전망대로 활용할 계획이다.

EDG는 길이 2백18미터의 세계에서 가장 긴 전자 화랑이다. 여수엑스포역에서 국제관까지 이어지는 LED천장에 바다의 이미지를 담은 영상이 펼쳐진다. 여수 거문도의 인어이야기와 전 세계의 바닷소리를 3차원 음향과 영상으로 담을 예정으로 프랑스의 유명 영화제작자이자 감독인 샤를 드모가 이 작업에 참여한다.

관람객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점도 EDG의 특징이다. 관람객들은 스마트폰으로 찍은 영상을 직접 이 갤러리에 올릴 수 있다. EDG의 대표 콘텐츠인 '꿈꾸는 고래'도 관람객과 소통한다. 관람객들이 희망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고래'가 커진다. 소리를 지르면 고래를 불러올 수도 있다. EDG는 첨단 IT기술이 만든 신개념 전시 공간이다.

국내 최대 규모의 아쿠아리움도 명물 중 하나다. 러시아 흰돌고래, 바이칼 물범, 해룡, 해우 등 기존 수족관에서 볼 수 없는 희귀생물들을 보여준다는 점도 차별적이다. 첨단 IT기술을 활용해 단순히 보는 수족관을 넘어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하루 90회 공연… 문화엑스포로 자리매김

2012여수엑스포는 문화예술 엑스포이기도 하다. 엑스포가 열리는 93일간 총 4백여 프로그램, 8천 회의 공연이 열린다. 하루 평균 90회의 공연을 만날 수 있는 셈이다. 빅오에서 열리는 뉴미디어쇼와 해상쇼, 수상공연 등이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규모는 작지만 알찬 공연들이 예정돼 있다.

박람회장 곳곳에서는 거리문화 공연이 상시로 열린다. 국내외 거리공연자들의 독특한 퍼포먼스를 즐길 수 있다. 전시관 입장을 위해 기다리는 동안의 지루함을 달래고 엑스포의 축제 분위기를 높이는 데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K팝 스타와 해외 팝클래식 연주자 등 특별초청공연과 특별기획 공연도 기다리고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국공립 및 민간 단체의 공연과 어린이 에듀테인먼트 공연,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참가국들의 문화를 만날 수 있는 공연도 열린다. '국가의 날'을 정해 해당국가의 문화와 발전상을 접할 수 있는 행사를 관람할 수 있다. 국제기구와 지자체, 기업의 날에도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G

글 · 변형주 기자

바다를 형상화한 주제관(위)은 여수엑스포의 주제의식을 담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관(가운데)과 기후변화관도 여수엑스포만의 독특한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

'특정일' 입장권 예매하면 편하게 관람
전시관도 예약제… 5퍼센트 할인 혜택도

여수엑스포를 관람하는 현명한 방법 중 하나는 '예매'를 하는 것이다. 가장 큰 강점은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판매하고 있는 '3차 예매'를 통하면 5퍼센트 저렴한 가격에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다.

전시관 예약도 할 수 있다. 여수엑스포는 전시관 예약제를 실시한다. 관람객을 분산해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다. 대상은 주제관, 한국관, 기후환경관, 아쿠아리움 등 8개 주요 전시관이다. 특히 입장권 중 특정일에 사용하는 '특정일권'은 예매를 하는 것이 좋다. 20만 장 한정 판매를 하기 때문이다. 특정일은 개막일인 5월 12일과 13일, 연휴기간인 5월 26~28일과 폐막일 즈음인 8월 10~12일이다.

입장권 종류는 다양하다. 필요에 따라 골라서 구매할 수 있다. 며칠에 걸쳐 꼼꼼히 관람할 경우엔 2일권이나 3일권, 전기간권 등을 구매하는 것이 실용적이다. 개회식과 폐막식을 보려면 특정일권을 구매해야 한다. 단체권은 30인 이상일 때 적용된다. 어떤 종류든 21개 전시관과 체험시설, 아쿠아리움, 문화공연 등 박람회의 모든 전시와 공연을 이용할 수 있다. 1회에 한해 외부 출입도 가능하다.

예매는 조직위원회 홈페이지(www.expo2012.or.kr), 인터파크 홈페이지(www.interpark.com), 인터파크 콜센터(1544-1555)에서 4월 말까지 할 수 있다. 다만 단체 구매(보통권 다량구매, 평일 단체권, 특정일 단체권)는 고객센터에서만 예매할 수 있다.

강희석 조직위 입장권부장은 "박람회 입장권 가격은 국내 주요 놀이공원 입장료의 86퍼센트 수준으로 책정됐다"며 "개폐장일 등 특정일에는 다양한 이벤트와 공연이 몰려 있는 만큼 조기 예매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 주요 전시관과 특징

전시관	특징
주제관	주제관2050 인류와 바다의 공존하는 모습 구현 •바다 위에 건설되는 세계 최초의 해상 전시관
해양 베스트관	해양·연안 분야의 벤치마킹이 가능한 세계 최고의 정책, 기술, 노하우, 제품 등 13개 최우수 사례 전시 •참가기관, 대중 해양연사가 함께하는 커뮤니케이션 랩 운영
기후환경관	해양의 기후환경 조절 역할,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의 위기 •지구의 양극지방(남극, 북극) 기후환경 체험(블리자드 얼음터널과 남극의 눈보라, 실제 얼음 빙벽)
해양문명 도시관	해양 실크로드, 2050년의 미래 해중(부유)도시 •실감나는 바다 환경과 리얼한 난파선 연출. •수중터널, 해중도시 주택, 생활 미래 체험
해양산업 기술관	지속 가능한 해양 에너지와 기술 전시 •해조류 월과 움직이는 3D, 4D 해조류 영상
해양생물관	갯벌과 바다 생태계를 통해 해양생물종 다양성 전시 •잠수정을 타고 마리나 해구를 찾아가는 바다 여행 연출
한국관	한국인의 바다정신과 해양한국 비전 제시 •태극문양을 디자인 모티브로 활용 •세계 최대 천장돔과 360도 서클비전
기업관	조선·해양, 첨단 IT 및 녹색성장산업 전시 •참가 : 현대자동차그룹관, 삼성관, SK텔레콤관, LG관, GS칼텍스 에너지 필드, 롯데관, 포스코관 •국내 글로벌 기업의(7개소) 독자적 조성 공간. 체험 위주 전시로 교육성과 오락성을 동시에 충족
국제기구관	해양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 관련 국제기구의 활동 내용 •참가 : UN, UNEP, FAO, IOC of UNESCO, CBD, IPCC, PEMSEA, GEF, OECD
한국해운 항만관	해운항만 관련 기관의 미래기술 및 활용 가능성 •참가 : 한국선주협회, 인천·부산·울산·여수광양 항만공사
해양로봇관	해양생물을 본뜬 로봇, 국내 대표 로봇 전시
BIE관	세계박람회의 중요성과 유산을 소개하는 전시
지자체관	한국 23개 지자체의 지역별 특색과 자율성 • 참가 : 광역(16)+여수시+인접기초단체(순천·광양·남해·고흥·하동·보성)

"우리는 홍보의 꽃"… 자발적 참여가 강점

IT전문가·대학생 등 1천2백명 활동… 사진·동영상 직접 만들어 올려

성공적인 여수세계박람회를 위해 뒤에서 묵묵히 뛰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여수엑스포 서포터스들이다. 이 중 재능기부를 통해 활발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는 '여수엑스포 SNS 서포터스'들이 있다. 온라인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이들은 왜 여수엑스포를 위해 자발적으로 나섰으며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들의 활동상을 들여다봤다.

명지대학교 도서관 3층 여수엑스포 미니 홍보 공간에 여수엑스포 SNS 서포터스들이 모였다. 리더 서포터스 강정원(40·앞줄 오른쪽)씨는 SNS 서포터스 활동에 대해 "여수엑스포는 친구와 같다"며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여수엑스포를 알린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명지대학교 도서관 직원인 강정원(40)씨는 여수엑스포 SNS 리더 서포터스다. 강씨는 도서관 일부를 여수엑스포 미니 홍보관으로 마련할 정도로 열성적이다. 그는 지난해 6월 지인을 통해 여수엑스포를 알게 된 뒤 SNS 홍보활동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재능을 살려 SNS 서포터스의 활동을 기록물로 보관·관리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강씨는 지난해 여러 차례 여수를 방문했다. "가 보지 않고 말할 수 있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조직위원회에 의해 알려진 사실보다 소외돼 있는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다. 답사를 통해 주변 지역과의 접근성 및 관광 동선 등 관련 정보를 온라인에서 공유하고 있다.

직접 현장답사하며 상세한 엑스포 정보 공유

그는 "일반인이 알려주는 정보는 좀 더 사실적이다"며 "페이스북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여수엑스포 다섯 자를 각인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처럼 '여수엑스포 SNS 서포터스'들은 여수세계박람회 홍보의 꽃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가 이들의 홍보활동 무대다. 이들의 역할은 온라인 공간에서 여수엑스포를 최대한 알리는 것. 여수엑스포 관련 사진·동영상 등 콘텐츠를 직접 생산해 온라인에 게재하는 역할까지 수행한다.

현재 1천2백여 명의 교육자, 문화예술인, IT전문가, 대학생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재능을 활용한 홍보활동을 벌인다. 이른바 '재능기부' 홍보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섰다는 점이 뜻깊다.

여수엑스포가 1993년 열린 대전엑스포와 다른 점이 있다면 국가 주도의 행사에서 시민 주도의 행사로 변했다는 것이다. 경기대 투어 사이클 동아리 회장 엄태훈(25)씨는 "시민이 적극적으로 주도할 수 있다는 게 SNS 서포터스의 최대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여름 동아리 회원 30여 명과 여수엑스포 홍보를 위해 전국 일주에 나섰다.

취미·직업과 연계한 홍보활동으로 효과 높여

수원에서 시작해 동해·남해·서해 해안도로를 타고 울릉도까지가 주요 노선이었다. 조직위원회로부터 팸플릿과 홍보 깃발을 받아 한달 동안 지역 주민을 상대로 여수엑스포를 알렸다. 하루 70장을 배포해 총 2천여 장의 홍보자료를 곳곳에 전달했다.

이 같은 홍보활동은 페이스북에 온전히 기록돼 있다. 관광학도인 엄씨는 "SNS 서포터스는 개인적으로 배움의 기회였다"며 "여수엑스포를 위해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다면 그 자체로 만족"이라고 말했다. 그는 5월 12일 여수엑스포가 개막되면 자원봉사에도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NS 서포터스는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아이디어도 선보이고 있다. 소셜MC로 활약 중인 박민우(30)씨가 대표적인 예다. 박씨는 서울시 SNS 서포터스로 활동한 이력을 갖고 있다.

그는 지난해 남해안 살리기 투어에 참여하면서 '여수엑스포 SNS 서포터스'에 대해 알게 됐다. 박씨는 지방 행사나 강의에 참여해 자연스럽게 여수엑스포를 소개한다. 스피치 강의의 경우 소재를 여수엑스포로 삼아 이야기 연습을 하는 식이다.

지난 12월 31일에는 여수조직위원회 사무실에서 SNS를 통해 실시간 방송을 진행했다. 페이스북 창에 영상을 띄우면 그걸 본 사람들이 덧글을 달면서 소통하는 방식이다. 박씨는 "SNS는 시·공간의 제약이 없어 생각을 공유하기 편리하다"며 "타지역 사람들에게 여수엑스포를 알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심과 반응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수엑스포의 성공을 기원하는 메모가 벽면 한가득 붙어 있다. SNS 서포터스 엄태훈씨가 이 모습을 찍어 SNS 공간으로 실시간 전송하는 모습이다.

실제로 1시간반 동안 진행되는 방송에서 첫 인사 덧글만 4백 개가 올라오는 등 반응이 뜨거웠다. 박씨는 "여수엑스포 홍보관을 소개하고 방문객을 인터뷰하는 영상을 찍어 SNS에서 공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포터스 그룹은 해외 홍보활동에도 적극적이다. 해외 홍보단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자비로 항공·숙박비를 부담하면서 중국, 유럽, 일본, 미국 등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여수엑스포를 알려왔다. 글로벌 행사를 추진하면서 주최 측이 경비를 지원하며 홍보활동을 펼치는 것과 달리 학생들이 스스로 경비를 마련해 홍보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자비로 세계를 여행하며 해외홍보 참여도

홍콩 링난대학교 교환학생인 김지영(24)씨는 홍콩의 대표 관광지 신사추이에서 케이팝 댄스를 추며 여수엑스포를 홍보했다. 김씨는 지난 2010 상하이엑스포 도우미로 활동한 바 있다. 그는 "한국·홍콩·중국 학생 20명과 여수엑스포 홍보티를 직접 만들어 입었다"면서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여수엑스포 홍보에 일조할 수 있어 기뻤다"고 말했다.

SNS 서포터스의 조직적인 활동은 다른 곳에서도 빛났다. 서포터스의 투표 참여를 통해 대만에서 열린 모델선발대회에서 SNS 서포터스로 활약 중인 런 마이클(21)씨가 1위를 수상한 것.

그는 "SNS 서포터스들의 도움에 감사한다"며 "대만에서 여수엑스포를 열심히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일본인, 중국인 서포터스가 자국에서 SNS를 통해 여수엑스포를 알리고 있다. G

글·김이슬 인턴기자 / 사진·염동우 기자

김근수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사상 첫 해상박람회 안 보면 후회합니다"

1백 일 앞으로 다가온 여수 세계박람회장은 막바지 공사로 분주했다. 빗방울이 날리는 궂은 날씨였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였다. 김근수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은 박람회장 건설은 물론 대회 운영까지 '한 치의 소홀함도 없는 준비'를 다짐했다. 관람객에게 '배려'와 '감동'을 선사하는 엑스포를 만든다는 각오다.

조선DB

김근수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은 교통에서 숙박, 음식까지 쾌적한 엑스포를 만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20~30년 안에 세계박람회(이하 엑스포)를 다시 유치하기 어려울 겁니다. 엑스포 개최를 원하는 나라들이 줄을 섰으니까요. 소중한 기회를 잡은 만큼 최선을 다해 성공시켜야죠."

김근수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은 여수엑스포가 '돈'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숫자로 측정하기 어려운 많은 가치를 창조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국가브랜드의 위상, 다시 말해 국격(國格)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여수시를 세계에 알리는 것도 뜻 깊다. 인구 30만의 작은 도시가 세계 해양문화의 중심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된다는 얘기다. 김 총장은 "여수엑스포가 여수시의 발전을 30년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엑스포 개막이 1백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준비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요.

"전체적으로 순조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람회장 건설은 현재 93퍼센트 진행됐고 2월 말이면 완공될 예정입니다. 3월 말이면 세부 공사와 조경까지 마무리됩니다. 박람회장이 완공되면 대규모 예행연습을 할 계획입니다. 3회에 걸쳐 모두 20만명이 참여합니다."

여수엑스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해양 엑스포라는 점입니다. 여수엑스포장은 바다 위에 지어졌습니다. 바다 속에 기둥을 박고 그 위에 박람회장을 차렸습니다. 일종의 '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백11번의 엑스포 역사상 바다 위에 전시장과 공연장을 만든 것은 여수가 처음입니다. 바다와 관련한 콘텐츠 역시 사상 최대입니다."

가장 추천할 만한 곳은 어디입니까.

"빅오(Big-O), 스카이타워, 엑스포디지털갤러리(EDG) 등입니다. 빅오는 대형 원형 구조물인데 다양한 공연과 장면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스카이타워는 시멘트 사일로를 활용한 세계 최대의 파이프오르간으로 웅장한 음악을 선보입니다. EDG는 2백8미터에 이르는 세계에서 가장 긴 '전자화랑'으로 관람객도 참여할 수 있는 양방향 디지털 콘텐츠입니다. 이 세 곳만 봐도 입장권이 아깝지 않을 것이라 자신합니다."

참여하는 기업과 국가들의 전시관도 엑스포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일 텐데요.

"기업관은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기업을 홍보하는 공간이니만큼 알아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국제관도 열기가 뜨겁습니다. 특히 중국, 미국, 일본 등의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중국은 상하이 엑스포 이후 엑스포에 대한 기대가 커졌습니다. 네덜란드와 이탈리아 등 전통적인 해양 강국들도 적극적입니다.

경제적으로 낙후한 국가에는 재정적인 지원을 해 해당국의 독특한 해양문화와 산업을 보여줄 계획입니다. 각국의 전시콘텐츠는 조직위원회와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엑스포의 주제와 맥이 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새로운 수요예측조사 결과 관람객이 1천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종전보다 2백만명가량 증가한 규모인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조직위원회가 예상한 8백만명은 사실 보수적인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라의 남쪽 끝에 자리했다는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감안한 것이죠. 하지만 접근성이 매우 좋아지고 있습니다. 도로가 확충되고 KTX도 운행합니다. 해외 관람객도 예상치를 웃돌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국의 엑스포 열기가 뜨겁기 때문입니다. 하기에 따라 새로운 예상치인 1천80만명 그 이상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숙박시설이 태부족이라는 우려가 여전합니다.

"여수시의 숙박시설만 보면 모자란 것이 분명합니다. 여수엑스포에 하루 최대 30만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인구 30만명의 중소도시인 여수시 혼자 감당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무작정 숙박시설을 확충할 수도 없습니다. 엑스포 이후에 유휴시설이 될 테니 말입니다.

하지만 숙박 인프라에 대한 시각을 바꾸면 사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수시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광양이나 순천 등 인근도시는 물론 광주 등 다소 떨어진 도시의 숙박시설을 활용하는 겁니다. 교통이 좋아졌기 때문에 심리적 거리감이 대폭 줄지 않았습니까. 광주에서 불과 1시간이면 여수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여수로부터 1시간30분 이내의 거리에 있는 곳까지 눈을 넓히면 숙박시설은 충분합니다."

1시간30분 거리인 곳에서 숙박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관람객도 많을 텐데요.

"사실 엑스포만을 위해 숙박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리라 봅니다. 숙박하는 경우 엑스포는 여행일정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시간30분 권역에 또 다른 관광명소가 있다면 굳이 여수에서 자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수 주변에는 이름난 명소가 많습니다. 조직위원회는 엑스포와 연계한 73개의 관광코스를 개발했습니다. 젊은이들을 위해서는 저렴한 야간열차를 운행할 것입니다. 인천발 여객선도 운항합니다.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숙박 수요를 분산시키는 것은 물론 더욱 즐거운 박람회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여수 시내 교통 상황도 걱정을 많이 합니다. 교통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입니다.

"하루 수십만명이 모두 자가용 차량으로 박람회장으로 이동하면 교통대란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가급적 도시 외곽에 주차를 하고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직위원회는 박람회장까지 10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환승주차장을 여러 곳 설치했습니다. 무료버스를 운행하고 매표소와 특산물판매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갖출 예정입니다. 자가용 차량이 없어도 박람회장을 방문하는 데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것입니다. 환승주차장 이용을 당부드립니다."

박람회장 안에서도 관람객의 만족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전시 콘텐츠 외에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요.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할 것입니다. 박람회가 열리는 3개월간 8천 회의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하루 평균 90회꼴입니다. K팝을 비롯해 빅오를 활용한 뉴미디어쇼, 예술성과 대중성을 고루 갖춘 특별기획공연, 수상공연, 거리문화공연, 참가국의 문화공연 등이 박람회장 곳곳에서 끊임없이 펼쳐집니다.

음식에도 각별히 공을 들일 계획입니다. '대규모 행사장의 음식은 비싸고 맛이 없다'는 인식을 바꿀 겁니다. 음식의 고장 남도의 풍미를 느낄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할 것입니다. 외부에서 식사할 수도 있습니다. 입장권은 1회에 한해 박람회장 바깥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운영합니다. 부담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엑스포 기간 동안 시내버스는 무료 운행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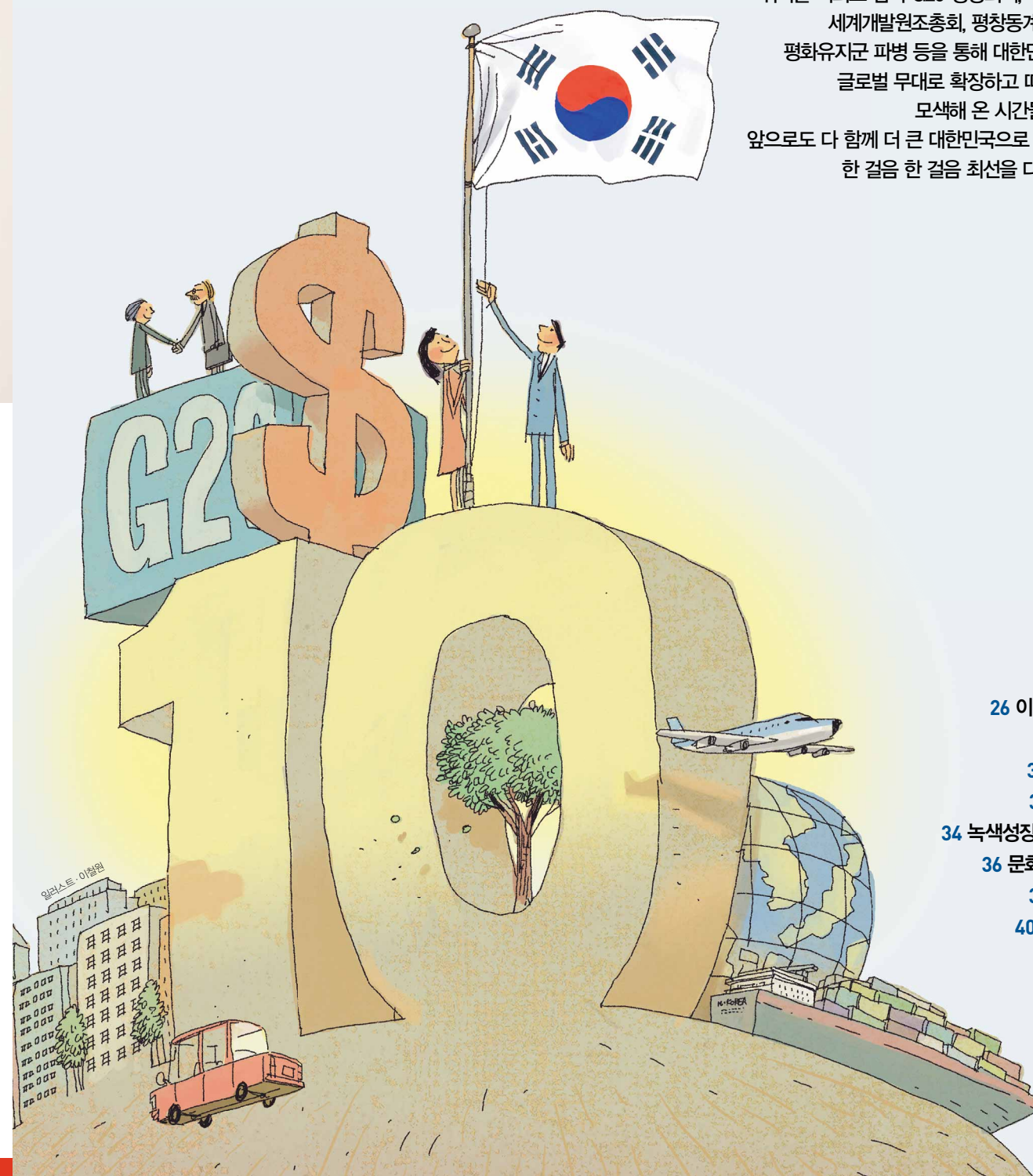
엑스포 개막이 1백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약속부터 드리겠습니다. 오지 않으면 후회하는 엑스포를 만들겠습니다. 엑스포에 오시는 모든 분이 감동하는 엑스포를 만들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맛있는 잔칫상을 차리겠습니다. 올 여름휴가에는 해외가 아니라 여수로 와주십시오." G

글·변형주 기자

기 획 특 집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해 남은 1년 더욱 소중합니다

이명박정부가 만 4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와 더불어 시작된 지난 4년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G20 정상회의, 자유무역협정,
세계개발원조총회,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평화유지군 파병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지평을
글로벌 무대로 확장하고 따뜻한 공생을
모색해 온 시간들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다 함께 더 큰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일러스트 : 이철원

더 큰 대한민국… '자신감의 시대' 열었다

두 차례 세계 경제위기 극복과 K팝 등 한류의 확산 통해 자존감 높아져

두 번의 세계 경제위기를 경험한 이명박 정부가 출범 4년째를 맞는다. 위기의 파고는 높았지만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정부와 국민의 의지는 그보다도 높았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경제위기 극복에 힘을 모으고, 어느 때보다 강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번영이란 궁극적 목표를 향해 소외된 이 없이 함께 가고자 한 지난 4년이었다.

조선DB

소녀시대 멤버들이 지난 1월 31일 미국 CBS 간판프로그램인 〈데이비드 레터맨 쇼〉에 출연한 뒤 또 다른 게스트인 미국 배우 빌 머레이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겁이 나서 시작조차 안 해봤다면 그댄 투덜대지 마라 좀! 주저하면 기회는 모두 너를 비켜가 가슴 펴고 나와봐라 좀!"

겁 없는 K팝의 질주가 소녀시대의 팝 본고장 미국진출로 이어졌다. 얼마 전 '세상에 나와보라'는 메시지를 세련된 비트에 얹은 신곡 '더 보이즈(The Boys)'를 발표한 소녀시대는 1월 31일 미국 CBS의 간판 토크쇼인 〈데이비드 레터맨쇼〉, 2월 1일에는 ABC의 인기 토크쇼 〈LIVE! with Kelly〉에 출연해 매력을 한껏 발산했다.

미국 무대에서 원더걸스도 바빴다. 원더걸스는 2월 1일 미국의 유명 매거진 〈US위클리〉의 온라인판에 집중기사로 실렸으며, 이들의 TV 영화 〈The Wonder Girls〉가 2월 2일(이상 현지시각) TeenNick 채널에서 방영됐다.

드라마에 이어 K팝이 주도하고 있는 한류는 국가 브랜드를 제고하며 한국의 대중문화를 세계 속으로 확산시켜 왔다. 방송콘텐츠 해외수출은 2008년 1백80만 달러에서 2011년 2백만 달러로 증가했다. 한류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로 2011년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사상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류지역 방한 관광객은 중국이 전년 대비 17퍼센트(2백만명), 동남아 지역은 20퍼센트(1백47만명)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K팝의 무서운 질주, 소비재 수출로 이어져

특히 2011년은 K팝 무대가 전 세계로 확장되는 시기였다. SM엔터테인먼트 파리공연(6월)과 뉴욕 메디슨스퀘어 공연(11월), JYJ의 스페인, 독일 등지의 13개 도시 월드투어(11월), 큐브 런던콘서트(12월) 등 해외공연이 이어졌다.

한류로 대표되는 문화콘텐츠 산업은 21세기 한국을 대표하는 산업으로 그 의미와 중요성이 날로 더해지고 있다. 관련 산업의 동반성장을 돕고 국가브랜드를 높여 수출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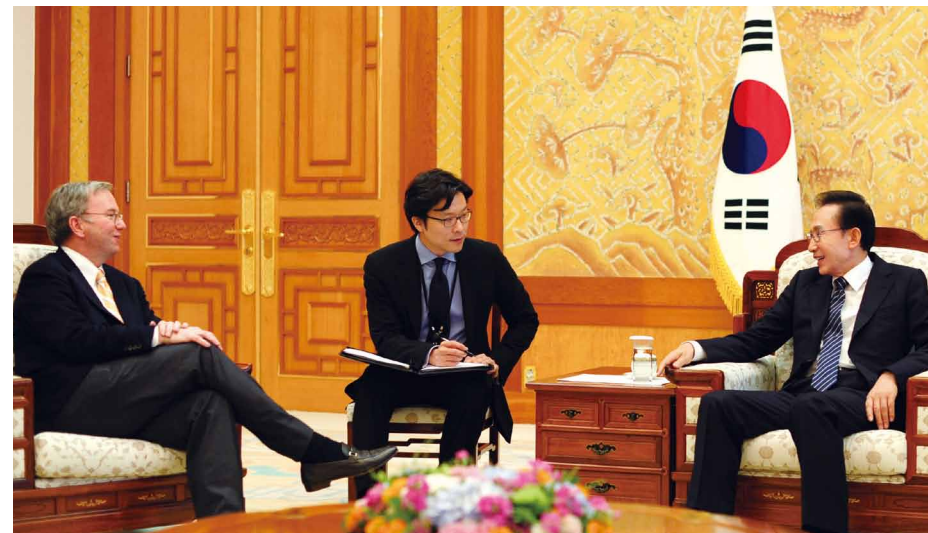
관세청이 한류와 비한류 국가군의 소비재 수출증가율을 비교한 수치를 보면 2005년과 2010년을 비교할 때 한류 국가군은 ▲이란 2백34퍼센트 ▲이라크 7천7백16퍼센트 ▲페루 3백20퍼센트 등으로 급증했으며, 비한류국가군은 ▲아랍에미리트 17퍼센트 ▲인도 −43퍼센트 ▲과테말라 −39퍼센트 등으로 대조적이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2011년 국가브랜드 순위는 실체 순위에서 전년보다 3계단 상승한 15위에 올랐고, 이미지 순위는 전년과 같은 19위에 머물렀다. 실체 순위에서는 미국이, 이미지 순위는 일본이 종합 1위를 차지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지난 2월 2일 발표한 2011년 국가브랜드 순위는 국가브랜드위원회와 공동으로 개발한 국가브랜드지수를 세계 주요 50개국을 대상으로 실체와 이미지 분야로 나눠 조사한 결과다. 실체 순위는 세계 주요 기관의 통계 1백25개를 분석해 산정했고, 이미지 순위는 26개국 오피니언 리더 1만3천5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대구세계육상선수권 개최, 활발한 기업 활동 등이 실체 순위 상승에 기여했다"며 "국가 이미지에는 영화 〈아리랑〉의 칸 영화제 수상, K팝 등 한류, 골프선수 최경주 등이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한류 확산은 가장 성공적인 '민관 협업' 분야 중 하나로 평가할 수 있다. 한류 확산 배경에는 정부의 '측면 지원'이 있었다. 해외문화원은 K팝의 해외 공연을 위해 현지 지원에 나섰고, 자생적 한류 동호회를 지원해 전 세계 20개 지역에서 1백82개 팬클럽 3백30만명이 활동 중이다.

조선DB

이명박 대통령과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이 지난해 11월 7일 청와대에서 만나 K팝 확산 지원에 대한 대화 등을 나누고 있다.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은 2011년 11월 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유튜브에 K팝 전용 채널을 개설하는 등 한류 확산 지원에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구글과 한국 콘텐츠의 해외진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이에 따라 올 12월 유튜브에 K팝 전용 채널이 오픈한다.

"국가경영 릴레이서 차질 없이 바통 전달해야"

오는 2월 25일이면 이명박 정부 출범 4년을 맞는다.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재정 문제로 촉발된 경제위기로 인해 3년 만에 두 번의 세계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도 우리나라는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열며 경제성장을 이어왔다.

나라 밖으로는 K팝으로 대표되는 한류 확산을 비롯해 G20 정상회의, 세계원조총회 개최 등 다양한 방면에서 글로벌 무대로 활동 영역을 넓혀왔다.

나라 안으로는 반복되는 세계 경제위기로 더욱 시름이 깊어질 서민과 중산층, 소외계층의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하기 위해 사상 최고 규모의 복지예산을 편성해 왔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공생발전'을 위한 제도 정비도 지속해 왔다.

위기와 함께 성장해 온 지난 4년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를 꼽자면 '자신감'일 것이다. 소녀시대의 '가슴 펴고 세상에 나오라'는 외침이, K팝 스타들의 세계 질주가 낯설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지금 젊은이들이 스스로를 '단군 이래 최고의 스펙(spec) 세대'로 지칭하듯, 지금 이 시대가 우리 역사를 통틀어 어느 때보다 자신감 있는 시대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31일 지역발전위원회 업무보고 마무리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꺼냈다.

"나는 국가를 경영한다는 건 릴레이라고 생각합니다. 4백미터 뛰고 바통을 다음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뛰어야 합니다. 앞으로 1년을 허송세월하면 10년을 잃어버리기에 속도를 내서 뛰어야 합니다."

현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대한민국의 번영이란 궁극적 목표를 향해 릴레이 경주를 계속할 것이다.

아직 해결되어야 할 각종 사회갈등, 청년취업, 고령화사회 대비 등 문제는 여전하지만, 우상향을 지속할 것이다. 단군 이래 최고의 시대란 자신감을 안고 말이다. G

글·박경아 기자

경제영토 확장… 무역 1조 달러 시대 활짝

서민·중산층 위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내수활성화에 역점

지난 4년동안 유례없이 두 번의 글로벌 경제위기가 발생했다. 세계 경제가 얼어붙고 수출길이 막히고 환율이 급등하고 외환보유고가 감소할 위기를 겪으면서도 우리나라는 오히려 수출다변화로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열고 경제영토를 확장해 왔다. 안으로는 경제성장의 온기와 결실을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일자리와 내수경기 활성화에 역점을 두어온 시간이었다.

주요기관의 경제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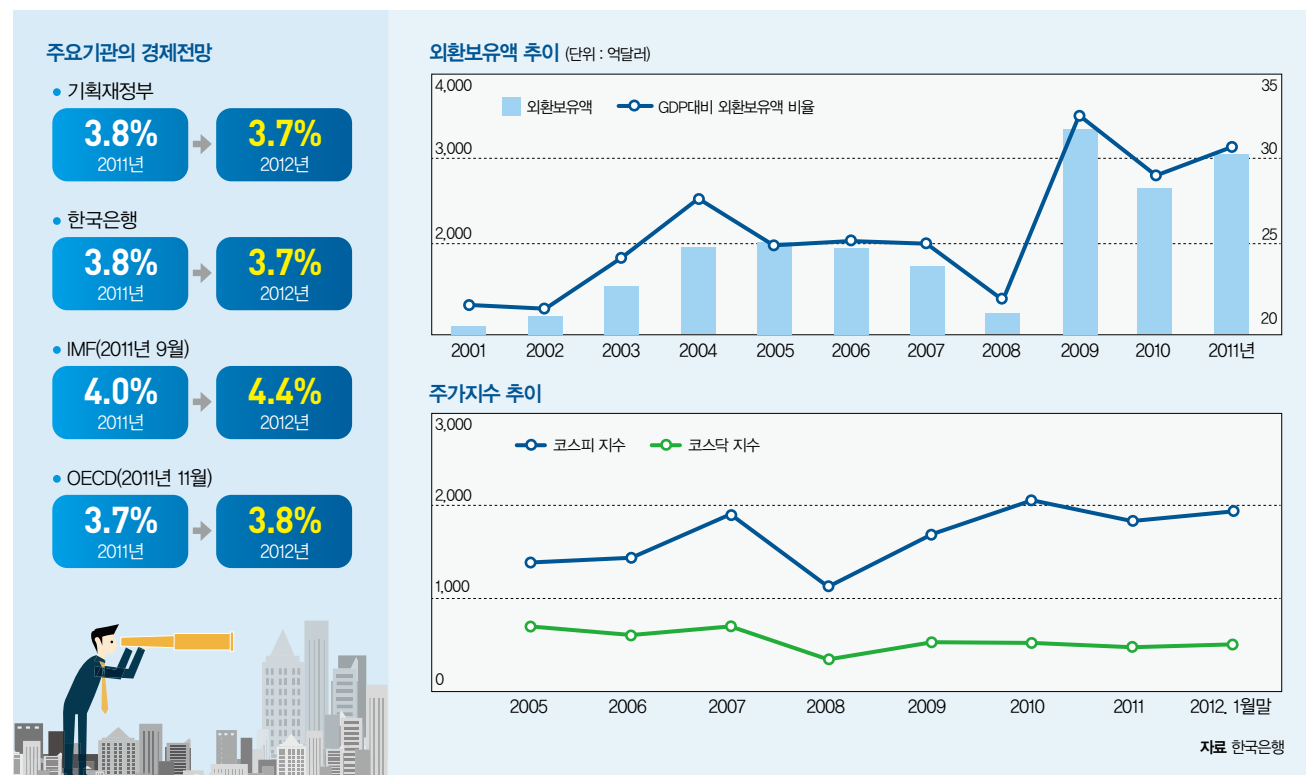
기관	2011년	2012년
기획재정부	3.8%	3.7%
한국은행	3.8%	3.7%
IMF(2011년 9월)	4.0%	4.4%
OECD(2011년 11월)	3.7%	3.8%

외환보유액 추이 (단위 : 억달러)

외환보유액 / GDP대비 외환보유액 비율 (2001~2011년)

주가지수 추이

코스피 지수 / 코스닥 지수 (2005~2012. 1월말)

자료 한국은행

지난 1월 31일 오전 7시30분 한국은행 본관 15층 회의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이른 아침부터 주요 기관 및 학계 인사들과 경제동향간담회를 개최했다. 번갈아 불이 붙고 있는 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세계 경제의 위기감 속에 열린 간담회였다.

김 총재와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 김주형 LG경제연구원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등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 경기가 대외 불확실성 증대로 인해 소비와 투자 심리 위축으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신흥시장국에 대한 수출을 바탕으로 성장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물가의 경우 소비자물가 오름세는 둔화되겠으나 신흥시장국의 원자재수요,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산물 수급불안 등으로 생산자물가 불안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견해가 제기됐으며, 가계소득의 증가가 제한되는 가운데 높은 물가수준이 지속되어 서민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음도 지적됐다.

FTA로 유럽·아시아·미국 연결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되돌아보면 한국 경제는 격랑의 4년이었다. 2008년 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미국 –2.6퍼센트, 일본 –6.3퍼센트, 독일 –4.7퍼센트 등 선진국들의 마이너스 성장 속에 우리나라는 2009년 1분기 –4.3퍼센트(전년 대비)로 저점을 찍은 뒤 지속 성장을 해왔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EU 등 선진국의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출시장 다변화 정책으로 2011년 수출 5천억 달러(연간 누계 기준)를 초과해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 1조 달러 시대'에 진입했다. 2011년 연간 수출은 5천5백65억 달러(전년 대비 19.3퍼센트 증가), 수입은 5천2백44억 달러(전년 대비 23.3퍼센트 증가)로 3백21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수출시장 다변화의 일등공신은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경제영토 확장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는 한·ASEAN FTA 완료(2009년), 한·인도 CEPA 발효(2010년), 한·EU FTA 발효(2011년), 한·페루 FTA 발효(2011년), 한·미 FTA 비준(2011년) 등을 통해 유럽–아시아–미국을 연결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세계 경제(GDP 기준)의 61퍼센트, 45개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우리의 경제영토는 세계 3위(1위 칠레 87퍼센트, 2위 멕시코 72퍼센트) 수준까지 확대된 것이다.

두 차례 세계 경제위기 극복한 '격랑의 4년'

이처럼 지난 4년에 걸쳐 발생한 유례없는 두 번의 경제위기를 잘 극복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경제위기 속에서 가장 큰 고통을 받게 될 서민·중산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과제로 내걸고 내수 활성화에도 역점을 두어왔다.

정부는 2008년 말 금융위기 발생 직후 급격한 고용상황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2009년 신속하게 추경예산(4조2천억원)을 편성하고 재정을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노력(2008년 30만명–2009년 80만명)을 펼쳤다. 2009년 2월에는 노·사·민·정이 일자리 나누기에 합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2009년 취업자수 증가율이 전년과 비교해 미국이 –3.8퍼센트, 일본이 –1.6퍼센트였으나 우리나라는 –0.3퍼센트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정부는 이후 급박한 경제위기에서 벗어났으나 경제회복의 온기가 서민·중산층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2010년 1월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설치해 민간 중심의 고용회복을 견인해 왔다. 이에 따라 2010년부터 민간 중심의 고용회복이 이뤄져 취업자수는 전년 대비 32만3천명이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4년 사이에 닥친 두 번의 세계 경제위기를 딛고 연간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열었다. 사진은 수출입화물의 선적과 하역작업으로 분주한 경남 창원시 안골동 부산신항 북컨테이너 부두.

특히 청년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고용친화적인 제도로 개편하기 위해 2011년 1월부터 중앙–지방정부 고용정책조정회의, 2월부터 민간–정부 고용정책회의를 개최해 왔으며, 전국의 2백44개 지자체 중 2백27개 지자체의 참여로 '일자리 공시제'가 정착할 수 있었다.

정부의 전 부서가 합심해 서민 체감경기 개선과 수출 내수 간 균형발전에도 힘써 왔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활력 회복지원을 중점 추진해 2009년 기업형슈퍼마켓(SSM) 등에 대한 사업조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영세상인의 피해를 최소화했다.

또 2010년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재정비했다. 2013년 완료를 목표로 나들가게 1만 개와 경쟁력 있는 시장 3백 개 육성 정책도 추진 중이다.

서민 체감경기 개선·수출내수 균형발전 도모

이와 같은 지원으로 골목상권·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온누리상품권 판매는 2010년(1~10월)의 6백83억원에서 2011년(1~11월)에는 2천30억원으로 3배가량 증가하는 성과를 올렸다.

지난 2월 1일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2012년 1월 말 현재 3천1백13억4천 달러라고 발표했다. 2011년 말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3천64억 달러보다도 49억4천 달러가 증가한 것이다.

2008년 말 경제위기 당시 우리나라는 외환위기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2008년 2천12억 달러 ▲2009년 2천7백억 달러 ▲2010년 2천9백16억 달러 등으로 외환보유고가 꾸준히 증가해 왔다. 위기를 겪으며 쌓아올린 외환보유고를 통해 우리 경제의 체력이 그만큼 강건해졌음을 엿볼 수 있다. G

글·박경아 기자

조선DB

지난 1월 26일 서울 강서구 오쇠동 아시아나타운에서 열린 '글로벌 매너 스쿨'에서 참가자들이 미소짓는 연습을 하고 있다. 이 행사는 아시아나항공이 고졸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 개최한 것이다.

고졸채용 확산… 열린 고용사회 성큼

취업자 증가 7년 만에 최고치… 실업률 금융위기 이전 수준 근접

지난해 취업자 증가 규모가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큰 효과를 낳고 있다. 정부가 주요기업, 기관, 단체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고졸채용을 독려하면서 고졸채용이 활성화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도 단순 지원에서 벗어나 취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꿨다. 노사관계도 개선돼 해외 유명기관의 평가에서 10년래 최고순위에 올랐다.

고용사정이 개선되고 있다. 정부는 일자리를 국정 최우선과제로 삼아 청년일자리 지원 강화, 고용친화적 제도개편 등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했다. 고용을 늘리는 기업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조세, 금융 등 제도를 개선했다. 예컨대 임시투자세액공제(투자 지원)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투자와 고용 모두)로 지원하고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우대보증 금융지원을 확대했다.

다행히 민간부문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크게 증가하는 등 고용상황개선이 본격화됐고, 특히 상용직 근로자가 크게 늘어나는 등 고용구조도 일부 개선됐다. 취업자 증가 규모가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고용률이 금융위기 수준을 웃돌고, 실업률은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학력차별을 근절하고 열린 고용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도 효과를 보고 있다. 고졸채용 활성화를 위해 주요기업, 기관, 단체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고졸채용 분위기를 전 업종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지난해 9월 지경부 산하 60개 공공기관이 5백50명 채용계획을 발표했다. 2012년 1월 현재 고졸채용 협약은 지자체 단위 10건, 경제 직능단체·기업·관계부처 7건이다. 금융권이 향후 3년간 8천7백명을 채용하기로 했고 지난해 하반기에는 16개 그룹이 1만4천2백14명을 뽑는 등 대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고졸채용이 확산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도 취업알선으로 전환

지난해 10월 '열린 고용사회 구현방안' 발표 이후, 특성화고 현장에서 취업희망률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도 2013년도 특성화고 취업목표율을 당초 5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도 단순 지원에서 벗어나 취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꿨다.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식이다. 지난해 3월 '자립지원 직업상담사'를 48개 자치단체에 채용·배치해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자활사업 등에 참여한 기초생활수급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 장려금을 우대지원하고, 중소기업 청년인턴 선발 시 취약계층청년 우선선발 규정을 명시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취업 후 6개월 이내에 수급대상에서 벗어난 경우 축하금 1백만원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의 취업을 늘리는 좋은 수단이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책 마련 및 기업·언론·시민사회 등 범국민적 참여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사회적기업 수와 종사자 수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여성취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보육 비용을 줄이고 설비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부의 비용 부담이 줄었다. 정부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지속적으로 늘린 덕분이다. 영유아가 있는 가정은 소득하위 70퍼센트까지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국가경쟁력 노사관계 평가도 10년래 최고순위

맞벌이부부·다문화가정 등 보육수요가 큰 가구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자녀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원하고 맞벌이 부부의 소득을 산정할 때 혜택을 늘려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나이가 어려 어린이집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돌보는 영아에 대한 양육수당도 대상을 24개월에서 36개월 미만으로 늘리고 금액도 월 10만원에서 10만~2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노사관계는 양호한 편이다. 2011년 1월부터 11월까지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5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7퍼센트 감소하며 전반적인 노사관계가 안정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현 정부 들어 노사분규 및 근로손실일수 등 노사관계 지표가 대폭 개선돼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노사협력선언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0년에는 4천12건으로 2천 건대에서 훌쩍 뛰어 4천 건대로 진입했고 현재도 4천 건대를 유지하고 있다. 노사관계 개선에 힘입어 스위스 IMD(국제경영개발원)의 국가경쟁력 노사관계 평가에서 한국은 지난 10년 중 최고순위를 달성했다.

정부 총지출에서 보건복지 분야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08년 26.2퍼센트로 26퍼센트대를 돌파한 데 이어 2011년에는 28퍼센트로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G 글·박영철 기자

상용직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 천명)

2007	2008	2009	2010	2011년
416	386	383	697	57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노사분규 추이 (단위 : 건)

2008	2009	2010	2011년
108	121	86	65

근로손실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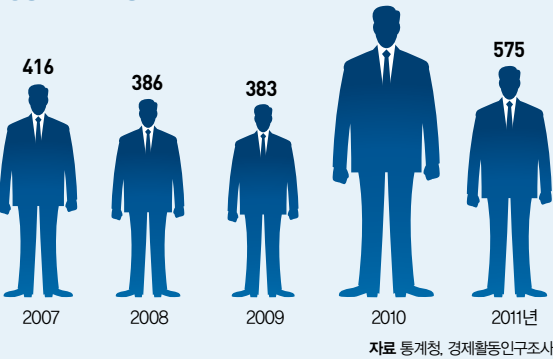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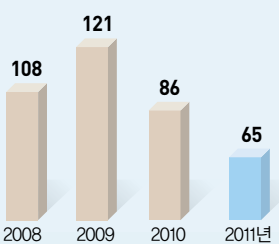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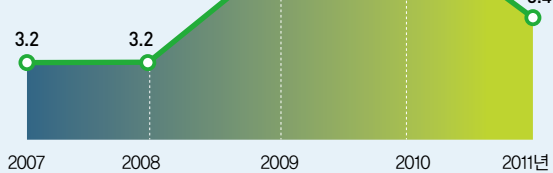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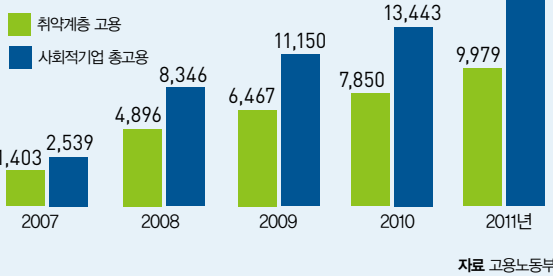
2011년 24.7일
(OECD 평균 34.7일)
(2006~2008년)

실업률 추이 (단위 : %)

2007	2008	2009	2010	2011년
3.2	3.2	3.6	3.7	3.4

사회적기업 종사자 수 증가 (단위 : 명)

	2007	2008	2009	2010	2011년
취약계층 고용	1,403	4,896	6,467	7,850	9,979
사회적기업 총고용	2,539	8,346	11,150	13,443	16,276

자료 고용노동부

R&D 4년간 68조… 과학경쟁력 세계 5위

창의·인성·융합형 교육 기반 마련… 교육경쟁력도 20위권 진입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이 되는 교육과 과학 분야의 성적표는 어떨까. 지난 4년간 정부는 R&D 예산을 1.5배 늘리고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는 등 과학기술과 교육강국을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펼쳐오고 있다. 그 결과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의 교육경쟁력과 기술경쟁력 평가에서 순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화고 취업률 추이 (단위 : %)

2008	2009	2010	2011	2012년 1월
19.0	16.7	19.2	25.9	42.3

마이스터고 재학생 취업약정 현황

시기	취업약정률	인원
2012년 1월	80.7%	2,905명
2011년 4월	55.6%	2,000명
2010년 4월	30.5%	1,097명

단계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구분	유아학비·보육료	양육수당
1단계 (~2011년)	**지원대상 지속 확대** 2008년 차상위 2009년 소득하위 50% 2011년 소득하위 70%	**2009년 7월 양육수당 도입** **지원대상 및 금액확대** 2010년 : 24개월 미만, 10만원 2011년 : 36개월 미만, 10~20만원
2단계 (2012년)	5세 누리과정 및 0~2세 유아교육·보육지원 확대	장애아동에 대해 취학전(84개월)까지 양육수당 지원
2단계 (2013년)	3·4세 누리과정 도입	양육수당 지원대상 확대 (소득하위 70%)

다문화가정의 자녀는 소득 수준과 무관, 전 계층 지원

국가별 R&D 투자 증가율

국가	증가율
중국	22.3%
한국	9.6%
일본	8.8%
미국	7.9%
프랑스	2.1%
독일	1.8%

GDP대비 R&D 투자 비중 추이 (단위 : %)

2006	2007	2008	2009	2010년
3.01	3.21	3.36	3.56	3.74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과학 올해도 R&D 예산 7.6퍼센트 늘려 16조원 확보

2009년 정부는 신성장동력 선정 이후 범정부 차원의 육성책을 추진해 원전, 로봇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얻었다. 세계 최초 40인치 LED TV 양산에 성공(2009년), 감시로봇시스템 알제리 최초 수출(2010년), 한국형원전 UAE 수출(2009) 등의 쾌거를 이뤘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상 및 기능을 강화해 과학기술 선진화의 토대도 구축했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 중장기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세계 5위(2011년) 수준의 과학경쟁력을 갖춘 국가로 발전시켰다.

정부는 지난 4년간 R&D 투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R&D 예산은 새로운 지식축적이나 창조적인 과학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되는 돈이다. 과학기술, 지식, 정보 등이 국가성장을 견인하는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R&D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크다. 특히 정부 R&D 예산 규모는 과학기술에 대한 정부 투자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올해까지 현 정부가 과학기술강국을 위해 R&D 분야에 투자하는 예산은 총 68조원에 이른다. 민간을 포함한 국가 R&D 투자도 GDP 대비 비중이 2007년 3.21퍼센트에서 2010년 3.74퍼센트로 확대돼 세계 3위권에 진입했다. 이는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올해 정부 R&D 예산은 16조2백44억원이다. 지난해 대비 7.6퍼센트 증가한 수준이고 현 정부 출범 당시 11조1천억원의 약 1.5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R&D 분야에 대한 정부 투자 규모가 이처럼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것은 미래 성장동력인 현 정부의 과학기술 진흥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R&D 투자에 힘입어 국제특허 출원건수도 세계 5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IMD 과학기술경쟁력 지표도 상승했다. 2011년 IMD 국가경쟁력은 세계 22위로 역대 최고 성적표를 받았다. 그중 과학경쟁력은 세계 5위로 전년 대비 1단계 소폭 하락한 반면, 기술경쟁력은 세계 14위로 4단계나 상승했다. 올해는 R&D 예산에서 기초·원천 투자 비중이 처음으로 50퍼센트를 넘어서는 등 기초·원천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녹색기술·신성장동력 등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지원도 계획대로 추진한다. 현 정부의 당초 과학기술 지원 계획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조선DB

3월부터 만 5세 공통 유아교육 과정인 '5세 누리과정'이 도입된다. 이를 통해 만 5세아 교육,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실현한다.

교육 '5세 누리과정' 첫 실시… 교육복지 현실화

정부는 인재양성을 통한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출범 초기부터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로 교육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다.

입학사정관제 도입, EBS 수능강의 내실화, 고교 다양화 등을 통해 학생들의 수능·논술 부담 완화와 공교육 중심의 글로벌 인재 선발 방식을 정착시켰다.

서울대 법인화, 총·학장직선제 폐지,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 등의 성과로 국립대 선진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서울대 법인화'는 세계 톱 10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이와 함께 산업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는 마이스터고 33개교를 지정·육성해 왔다. 마이스터고는 2010년 2월 개교 이후 산업수요 맞춤교육을 통해 2013년 졸업예정자의 80.7퍼센트가 채용약정을 맺는 등의 성과로 과거 10년간 감소하던 특성화고 취업률이 반등에 성공했다.

고졸 취업자가 재직 중 계속교육을 통해 성공할 수 있는 후(後)진학 인프라 구축을 본격화해 선진 직업교육 정착의 환경도 조성했다. 이 밖에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제도 개선, 외국교육기관 유치 등의 성과도 이뤘다.

정부는 또한 출범 후 꾸준히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들을 펼쳐왔다. 출범 후 학부모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09년 양육수당을 도입해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확대하는 한편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을 지난해 소득하위 70퍼센트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2011년 IMD 교육경쟁력 주요 국가별 순위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2011년 교육경쟁력 29위를 차지했다. 최근 몇 년간 30위권에 머물다 20위권에 처음 진입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제학업성취도 평가인 PISA 순위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는 '5세 누리과정'을 신설, 만 5세 유아에 대한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실현한다.

5세 누리과정은 만 5세 유아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오는 3월부터는 0~2세 영아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닐 경우 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한다. 정부는 내년부터는 3~4세에도 누리과정을 확대 도입한다. 양육수당도 소득하위 70퍼센트까지 확대해 보다 수준 높은 보육·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G

글·박근희 기자

녹색기술에 대한 R&D 투자 확대
1.4조원 2009년
2조원 2011년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 대상 확대
3,000㎡이상 → 1,000㎡이상

전기차 확산기반 구축
전기차 보급 559대
전기충전기 493대

공공기관 녹색제품 의무구매 활성화
2,549억원 2004년
16,412억원 2010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부문별 ·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20년 전망치 대비 감축률)

국가전체	산업	수송	건물	농림어업	폐기물	공공
30%	18.2%	34.3%	26.9%	5.2%	12.3%	25%

자료 환경부

신재생에너지 누적보급량 세계 10위

첨단기술 · 굴뚝산업과 융복합 신산업 등 미래성장산업 육성 힘써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08년 광복절 기념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을 제시했다. 이는 우리 경제의 활로를 녹색기술과 친환경에서 찾자는 것으로,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는 환경(green)과 경제(growth)의 잠재력을 찾아내 이를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삼자는 것이다.

녹색성장 '제2의 한강의 기적' 부푼 꿈

이명박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 발표 이후, 한국은 '녹색성장 선도국가'로 우뚝 섰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2009년 2월 <세계 녹색뉴딜(Global Green New Deal)> 보고서에서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은 '그린 뉴딜'의 주요 요소를 모두 갖춘 모범 사례"라고 소개하는 등 국제기구와 해외 언론들은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을 주목했다.

한국의 녹색성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이사회가 녹색성장을 OECD 핵심 미래전략으로 선포하도록 했고, 한국은 현재 개발도상국의 녹색 공적개발원조(ODA)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목표, 추진전략, 중점 추진과제를 포함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수립했으며, 기후변화, 에너지, 지속가능 발전 등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포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도 마련했다.

정부는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끝나는 2013년까지 세계 그린카 4대 강국으로 도약, 주력산업 녹색제품 수출 비중 15퍼센트, 녹색기술제품 세계시장 점유율 8퍼센트, 자전거 교통분담률 5퍼센트,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3.8퍼센트 등의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2020년에는 세계 7대 녹색강국, 2050년엔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신재생분야, 스마트그리드 등 주요 녹색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도 힘을 쏟았다. 정부는 세계 최초로 2011년 4월 '지능형 전력망법'을 제정했고, 국제협의체 사무국(ISGAN) 유치 등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 분야에서 선도적 위상을 강화했다.

서남해 해상풍력 발전단지(2.5기가와트급)를 구축하는 등 풍력발전·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 발표 이후 신재생에너지에 집중 투자한 결과,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신재생에너지 관련 수출액이 민간투자 규모인 3조5천억원을 초과하는 45억4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시장 규모, 수출액·고용 등의 산업지표로 볼 때 국내 신재생산업은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신재생에너지의 국내 보급량은 연평균 6.65퍼센트로 지속적인 증가를 했고, 특히 태양광은 당초 목표를 초과달성해 누적보급량(2010년 기준 6백80만4백TOE·석유환산톤)이 세계 10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속적인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를 실시하고 있고, 연구개발 규모도 2015년까지 2011년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신성장동력 과학벨트 조성 위한 법적 · 제도적 기반도 마련

이명박정부는 신성장동력 창출 사업을 새 정부의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역대 정부에서 추진하던 신성장동력 사업들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명박정부는 경제환경이 불안할수록 확실한 성장산업이 뒷받침돼야 선진경제로의 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 경제성장을 주도해 나갈 미래 성장산업 육성을 밀어붙였다.

이명박정부는 신성장동력 창출과제 선택기준으로 ▲반도체, 조선, 자동차,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 현재 강점을 지닌 분야의 세계 초일류화 ▲문화콘텐츠, 소프트웨어 등 잠재력이 충분해 발전 가능성이 있는 분야의 주력산업화 ▲에너지, 컨설팅, 금융, 디자인 부품소재 등 다른 산업발전의 인프라 제공 등 기반산업 분야의 경쟁력 제고 ▲자동차 전장부품으로서 반도체산업 등 융합 신산업 창출 및 이업종 간 협력 등을 설정했다. 첨단기술 분야뿐 아니라 '굴뚝' 산업과 융복합 신산업 분야 등에서도 성장동력을 찾겠다는 것이었다. 정부는 2011년 4월 '과학벨트특별법'을 시행하고 이어 과학벨트 입지를 선정하는 등 과학벨트 조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 전담연구를 수행할 기관으로 기초과학연구원을 설립했다. 기초과학연구원은 2012년 25개 연구단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연구단 50개, 상근인력 3천명 규모로 육성된다. 또 중이온가속기를 국제과학벨트에 구축하기 위해, 현재 김영기 페르미랩 부소장 등 전문가 7인으로 개념설계 전반과 사업추진 방향을 점검 중이다. 이명박정부는 특허 등 산업재산권, 저작권, 브랜드·콘텐츠 등 국가 지식재산의 창출과 활용, 그리고 보호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법적·정책적 토대도 마련했다. 지난 2011년 5월 '지식재산 기본법'을 제정했고, 이어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출범해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적 추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이명박정부 들어 방위산업의 본격적인 수출시대가 개막된 것도 기억할 만하다. 방위산업은 2011년 인도네시아에 T-50 고등훈련기를 수출하는 등 24억 달러의 사상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 본격적인 수출산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즉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와 적극적인 정부지원으로 방산수출 규모가 2010년 대비 약 2배 성장했고, 2006년 대비 10배 가까이 성장한 것이다. G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2011년 5월 25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창설 50주년 특별 각료이사회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이날 OECD는 우리나라가 제안한 녹색성장전략종합보고서를 채택했다.

글·오동룡 기자

콘텐츠 수출 2배로… 문화강국 발돋움

외국인 관광객 1천만 시대 눈앞에… 공공체육시설도 꾸준히 증가

문화의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지난 4년간 문화·관광·체육 분야는 꾸준한 성장세를 일궈냈다. 우리나라의 문화콘텐츠는 지속적인 투자와 신한류 열풍을 타고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으며, 한국방문의해, 국제회의 개최 등 다양한 호재에 힘입어 우리나라를 찾는 외래관광객 수도 한층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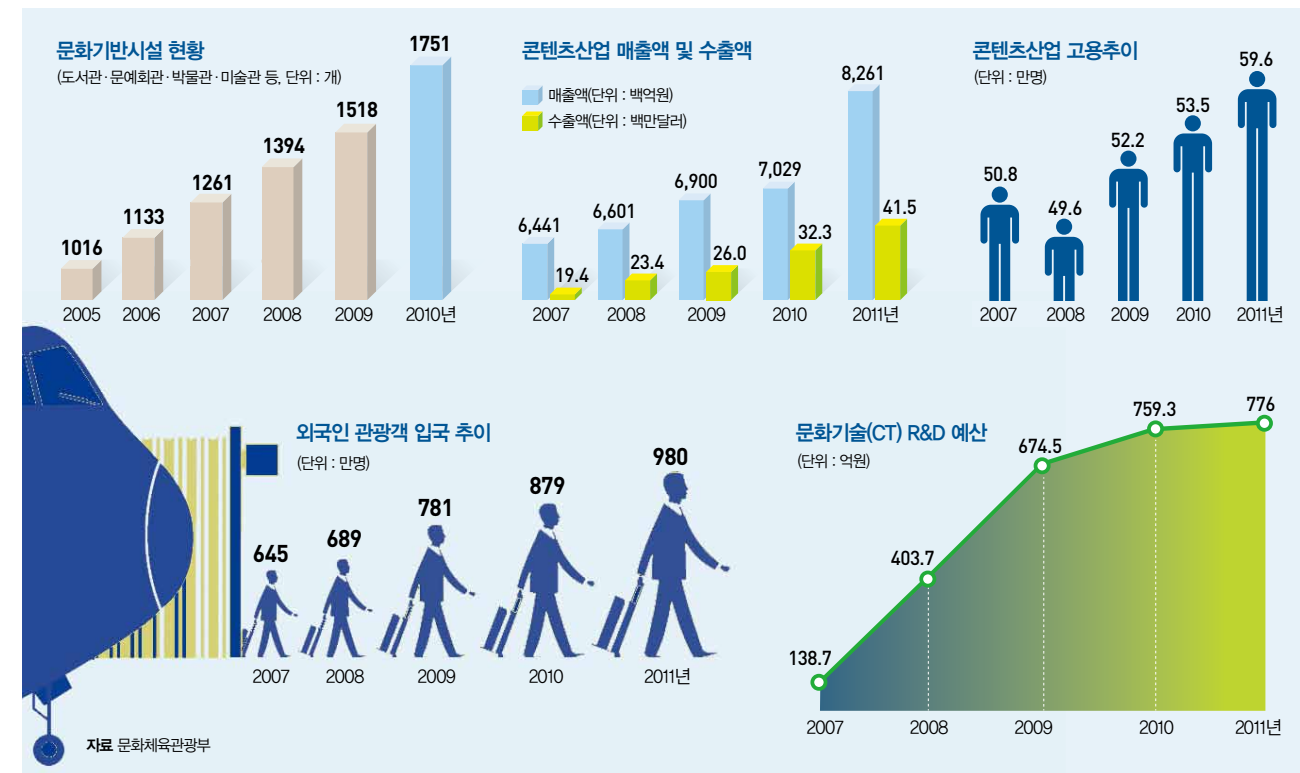
지난 4년간 문화콘텐츠 부문은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는 과감한 투자와 문화 신한류 등의 호재를 발판 삼아 호황세를 보였다. 출판, 음악, 게임, 영화 등 12개 분야를 아우르는 지표에서 지난해 총 매출액은 82조6천1백46억원, 수출액은 41억5천9백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각 14.6퍼센트, 28.9퍼센트 증가했다.

특히 문화콘텐츠 수출은 최근 5년간(2007~2011년) 연평균 25.2퍼센트 증가하며 2배 이상의 신장을 일궈냈다. 또한 사회 전반의 실업률 증가 속에서도 콘텐츠산업 고용은 2008년 49만명에서 지난해 59만명으로 10만여 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이렇게 문화콘텐츠 분야가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부의 관련 정책 지원과 더불어 미디어 환경 변화, 한류 순풍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게임산업은 국제경쟁력을 바탕으로 두드러진 성장세를 나타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콘텐츠산업 2011년 결산 및 2012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게임산업은 지난해 9조1천1백억원의 매출을 기록, 전년 대비 22.7퍼센트가 늘었다. 수출액도 22억1천1백만 달러로 37.7퍼센트나 뛰었다. 이는 스마트기기의 보급 확대로 온라인게임뿐만 아니라 스마트게임의 해외 수출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수출 확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게임·K팝 등 문화콘텐츠 지난해 매출 82조원

음악산업도 2008년 2조6천억원 매출규모에서 지난해에는 3조7천8백억원 규모로 급성장했다. 특히 K팝과 창작 뮤지컬 등 관련 산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수출액은 2010년 대비 1백12.9퍼센트나 늘어 1억7천7백만 달러를 달성했다. 캐릭터산업의 매출액은 7조5백억원으로 2010년 대비 19.7퍼센트 늘었고, 수출액은 3억7천4백만 달러(35.7퍼센트 증가)를 기록했다.

이러한 국가 성장동력인 콘텐츠산업의 발전을 견인할 핵심기반인 문화기술(CT) R&D 투자규모를 확대한 것도 눈에 띈다. 문화기술 관련 예산은 2007년 1백39억원에서 2008년 4백3억원으로 대폭 증가한 뒤 지난해에는 7백76억원이 책정되었다.

조선DB

올해는 2010년부터 시작된 '한국방문의해'의 마지막 해이다. 오는 5~8월에는 여수세계박람회란 빅 이벤트가 있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힘을 실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고궁에서 열린 전통놀이 공연에 참가한 외국인 관광객의 모습.

문화기반시설 현황 (도서관·문예회관·박물관·미술관 등, 단위 : 개)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년
1016	1133	1261	1394	1518	1751

콘텐츠산업 매출액 및 수출액 (매출액(단위 : 백억원), 수출액(단위 : 백만달러))

	2007	2008	2009	2010	2011년
매출액	6,441	6,601	6,900	7,029	8,261
수출액	19.4	23.4	26.0	32.3	41.5

콘텐츠산업 고용추이 (단위 : 만명)

2007	2008	2009	2010	2011년
50.8	49.6	52.2	53.5	59.6

외국인 관광객 입국 추이 (단위 : 만명)

2007	2008	2009	2010	2011년
645	689	781	879	980

문화기술(CT) R&D 예산 (단위 : 억원)

2007	2008	2009	2010	2011년
138.7	403.7	674.5	759.3	776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생활과 밀접한 문화기반시설도 지속 확충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도서관, 문예회관, 박물관, 미술관 등의 문화기반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2008년 1천3백94개 관에서 2010년 1천7백51개 관으로 늘렸다.

2008년 5월부터는 국립박물관·미술관에 대해 무료관람을 시행하고 있으며 2009년 5월 디지털도서관을 개관하는 등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한 것도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올해부터는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문화·스포츠·여행 등 3대 바우처 예산을 5백38억원(1백26만명)에서 7백36억5천만원(1백71만명)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관광분야의 지표도 2008년을 기점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어 관광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1백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관광수지 적자는 2007년 1백9억 달러를 기록한 후 2011년에 28억 달러로 4년간 74퍼센트나 감소하는 성적을 거두었다.

외래관광객은 2007년 6백45만명에서 2011년에는 9백80만명으로 52퍼센트 증가했다. 이렇게 꾸준히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한 요인은 2010년 '한국방문의해' 시작을 맞아 적극적인 홍보와 비자제도 개선, 규제완화 등의 통합 관광마케팅을 추진한 결과이다.

의료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고택·종택 등 전통가옥과 템플스테이 등을 우리나라 고유의 관광상품으로 육성한 것도 주효했다. 오는 5월 12일부터 92일 동안 열리는 2012여수세계박람회는 외래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정부는 '한국방문의해'가 끝나는 올해 말까지 외래관광객 1천만명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주5일 근무가 정착되고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등 공공체육시설도 확충되었다.

2008년 1만2천3백42개소였던 공공체육시설은 2010년 1만5천1백79개소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국민 1인당 체육시설 보급면적도 함께 증가하여 2008년 말 기준 평균 2.54제곱미터에서 2011년에는 3.3제곱미터를 달성했다. 이는 2025년까지 1인당 5.7제곱미터 달성 목표 대비 72.7퍼센트를 달성한 수치다. G

글·손수원 기자

G20 정상회의 성공 개최 등 국격 높였다

북한 위협에 맞서 '국방개혁 2030' 추진… 청해부대 등 PKO활동도 확대

지난 4년간 외교정책의 핵심목표는 '국격제고'였고, 한·미 FTA 비준을 통해 한·미동맹을 경제분야로 지평을 넓혔다.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사건 등 북한의 연이은 무력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방개혁 2030'을 추진했고, '아덴만 여명작전'을 통해 우리 선박의 안전항해와 교민보호 임무에도 힘을 쏟았다. 남북관계에서는 북한에 휘둘리지 않고 대북정책에서 원칙과 일관성을 유지했다.

외교 '원조받던 나라'서 '원조공여국'으로 첫 전환

'국격제고'와 '실용외교'. 그 성과의 중심에는 2010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있다. 특히 선진국이 아닌 국가에서 G20 정상회의를 처음 개최했고 우리 정부의 제안으로 개발의제가 최초로 다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2012년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를 유치한 것도 큰 외교적 성과다.

이명박정부는 지난해 10월 국빈 방미 성과에 기초해 한·미 다원적 전략동맹 강화를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한·미 FTA 비준을 통해 한·미동맹이 경제분야로 확대됐고, 미국의 확고한 대한 방위공약 확인 등 군사안보협력이 강화됐다. 2015년 전작권 전환 관련 동맹 재조정 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도 약속했다.

'글로벌 코리아' 구현을 위해 우방국은 물론 주변국과의 관계강화에도 힘을 쏟았다. 미국과는 북핵 등 북한문제 관련 긴밀한 한·미공조 유지를 하기로 하는 한편, 일본과는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를 통해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성숙한 동반자 관계를 약속했다.

러시아와는 한·러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러 가스관 사업, 극동시베리아 개발 논의 등 양국 간 실질협력 관계를 다졌다. 또한 '신아시아외교 구상'을 바탕으로 중국을 비롯한 많은 아시아 국가와의 적극적인 정상외교를 통해 범아시아 차원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지난해 한·EU FTA 잠정 발효와 유럽 3개국 순방으로 EU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다졌다.

정부는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공적개발원조(ODA) 등 '기여외교'에도 신경을 썼다. 성숙한 세계국가(글로벌코리아) 구현을 목표로 우리의 국력에 걸맞게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09년 11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결정을 통해 한국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선진공여국'으로 공식적으로 전환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

국제평화유지 활동 확대

아이티 단비부대 재건지원 활동 (2011.1.1~11.30)

잔해제거	도로복구	부지정리	하천준설	심정	기타
13	16	40	15	13	215

아프간 PRT(지방재건팀) 경호 및 호송작전 실적 (2011.1.1~11.30)

지상지원	공중호송	공중정찰
144	298	77

선박 호송실적 (단위 : 건)

	우리선박		외국선박	
	근접호송	안전항해지원	호송동행	안전항해지원
	56	471	371	647

실용외교 지속 추진

- 한·미 다원적 전략동맹 강화 노력 지속
  한·미FTA 비준을 통해
  한·미 동맹이 경제분야로 확대
- Global Korea 구현을 위한 주변국/우방국과의 협력 증진
  한·일 간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성숙한 동반자로서의 토대 강화
  한·중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지속 발전
  한·러 간 실질적 협력관계 증진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자료 국방부·외교통상부

안보 내실있는 국방개혁 추진

이명박 대통령 집권 4년 동안 천안함 피격 및 연평도 포격사건이 발생했다. 북한의 연이은 무력도발에 국가안보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정부는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방개혁 2030(일명 국방개혁 307)을 추진했다.

국방개혁은 상부지휘구조 개편과 지휘구조 개선을 통한 합동성 강화, 적극적 대북 억제능력 제고, 장성 수 감축과 국방운용 효율화 등을 핵심으로 한 개혁안이다. 또 지난해 6월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창설해 NLL 및 서북도서에 대한 북한 도발 대응능력을 강화했다.

이명박정부는 한·미 간 제반현안 논의·조율을 위한 고위급 전략대화체(KIDD)를 마련하는 등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군사대비 태세를 강화했다. 이는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고,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국방개혁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의 국가전산망 해킹에 대비, 범국가 차원의 사이버 위기 대응체계도 확립했다. 지능화한 사이버 공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5개 유관기관 합동 '국가 사이버안보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국제평화유지활동(PKO)을 더욱 확대했다. 청해부대는 소말리아 해역 아덴만에서 대해적작전을 수행하는 한편, 우리 선박의 안전항해와 교민보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아덴만 여명작전'을 통해 삼호쥬얼리호를 점거한 해적들을 제압하고 선원 21명을 구출했다. 한진텐진호, STX 아젤리아호를 탈취하려던 해적들도 링스헬기를 동원해 퇴치했다.

해외파병 부대도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면서 국위를 선양하고 있다. 레바논의 동명부대는 현지에서 모범적인 민사작전을 펼치고 있고, 아프가니스탄의 오쉬노부대는 한국 PRT(지방재건팀) 활동을 지원하는 경호임무를 수행하고, 아이티의 단비부대는 레오간 일대의 지진피해 재건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조선DB

2010년 11월 12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서울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 오바마 미 대통령, 하퍼 캐나다 총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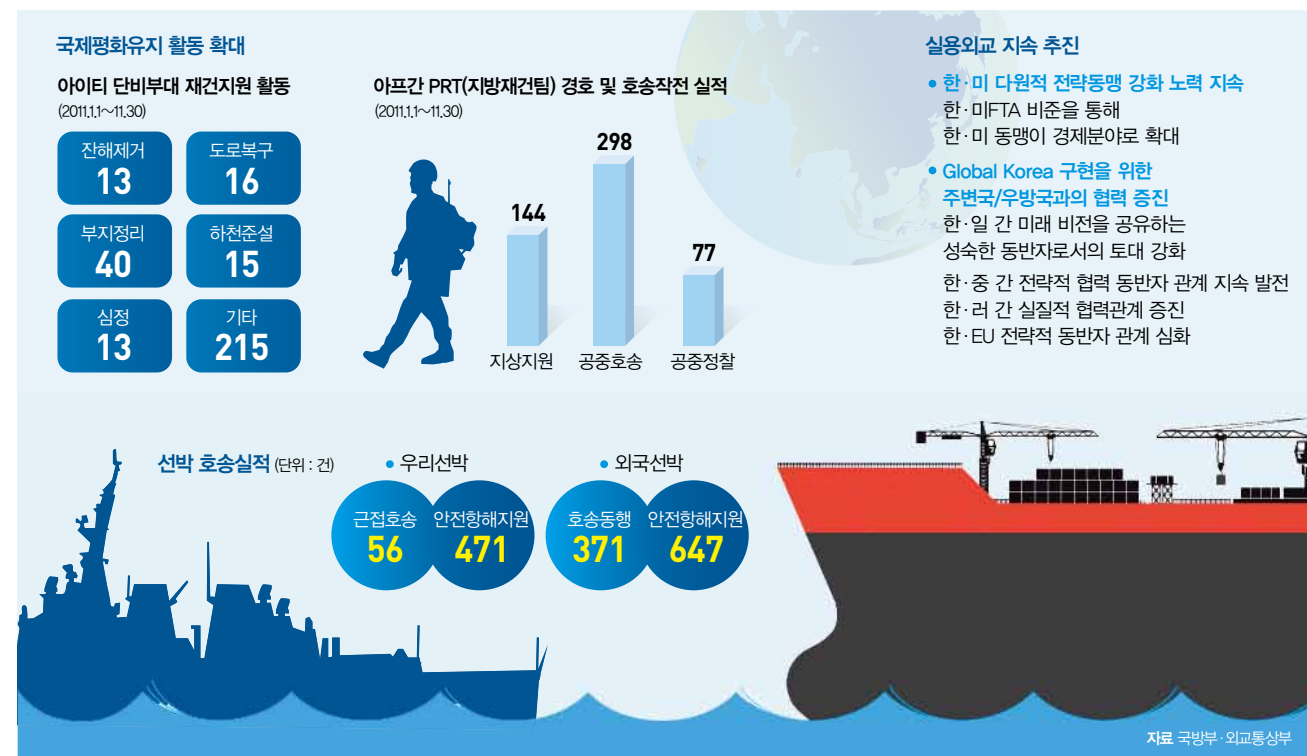
남북관계 통일재원 마련 위한 '통일계정' 설치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4년간 남북관계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하지만 과거 정부와 달리 북한에 휘둘리지 않고 대북정책에서 원칙과 일관성을 유지했다는 점에서는 높은 점수를 얻고 있다.

현 정부는 출범과 함께 북한핵 폐기와 개혁개방을 전제로 북한경제를 1인당 소득 3천 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이른바 '비핵개방 3000'을 내걸었다. 그러나 북한은 2009년 장거리 로켓 발사시험과 2차 핵실험 등 잇단 도발을 해왔고, 우리측이 책임 있는 조치 등 진정성 확인을 명확히 하고 있어 향후 남북관계는 가변성이 적지 않다는 관측이다.

정부가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제도적 장치인 '통일계정(통일항아리)'을 설치하고, '남북협력기금법'을 개정하는 정부안을 확정한 것은 통일준비에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탈 주민 희망프로젝트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북한이탈 주민의 자립을 돕기 위해 취업지원을 하고 있고, 강원도 화천에 '제2하나원'을 착공해 올해말 완공 후 탈북자 리더그룹 양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통일준비를 위해 정부는 젊은 세대가 참여하는 '찾아가는 맞춤형' 통일교육을 확산시키고, 주변국에 통일문제 고위정책협의 및 실무급 '통일전략대화'를 실시했다. G

글·오동룡 기자

지표보다 국민 피부에 닿는 정책 펼쳐야

'나쁘지 않은 성적표'에 국민이 공감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통찰을

이명박정부 출범 4년을 맞아 각종 지표가 발표되고 있다. 객관적으로 보이는 지표는 과거 여느 정부에 비해 결코 뒤떨어지지 않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표에 집중하는 것보다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침으로써 국민이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지표로 보는 참여정부의 4년 성적표는 결코 나쁘지 않다." 이것은 지난 노무현정부가 4년차를 지나면서 발표한 자료의 첫 줄 내용이다.

참여정부 대신 이명박정부로 주어만 바꾸어 놓으면 이번 정부가 발표할 성과보고서의 제목이 될 것 같다. 그때나 지금이나 정부는 '나쁘지 않은' 성적표를 제시하고 있지만, 다수의 국민은 이 성적표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극복하고 최연소 현대건설 회장에 오르면서 샐러리맨의 신화를 창조해 냈고, 청계천 복원과 시내버스 운송체계의 개선을 통해 서울시장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그리고 '경제전문가'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했다. 그 결과 대선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화려하게 출범했다. 그러나 경제성장을 촉진하고자 참여정부가 협상한 한·미 FTA의 비준을 서둘렀고, 그 과정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고 말았다.

세계 금융위기에도 뛰어난 경제성적표 이뤄

대규모 촛불시위로 국정의 중심이 온통 반미주의와 결합된 미국산 쇠고기의 인간광우병 우려에 집중되었을 때 미국의 비우량주택담보대출의 부실화는 이미 세계경제에 금융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선진국발 금융위기에 대한 이명박정부의 대응은 비교적 신속하고 능동적이었으며,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효과적이었다. 급격한 수출감소를 재정투자의 확대와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해 상쇄시키고, 급속히 빠져나가는 외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통화스와프를 확대하고 국제공조를 통한 세계경제 안정화에 리더십을 발휘했다.

그 결과, 2009년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경제성장률은 0.2퍼센트의 플러스로 돌아섰고, 2010년에는 6.2퍼센트의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달성했다.

2011년 예상보다 다소 낮은 3.6퍼센트의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유로존의 재정위기를 감안한다면 그리 나쁜 성적표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2011년에는 세계경제 불황의 어려움 속에서도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고 2백76억5천만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면서 14년 연속 흑자행진을 이어 갔다.

내한 외국인 관광객의 수도 9백79만명을 기록하여 관광객 1천만 시대를 눈앞에 두었고, K팝이나 온라인게임, 드라마, 음식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 한류 열풍이 폭풍처럼 일어났다. 한국의 대외적 위상은 문자 그대로 '단군 이래 최고의 지위'에 올랐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 서민들은 삶이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힘들고 어려워졌다고 한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1년도 공식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0퍼센트로 당초 목표인 3.0±1퍼센트를 충족시켰고 통계청이 발표한 공식 실업률도 3퍼센트에 불과하여 지표로서는 결코 나쁘지 않다.

성장보다 중요한건 서민의 삶

그러나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20퍼센트를 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은 35퍼센트를 넘나든다. 대학을 나와도 변변한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자식들을 보면서 베이비부머들은 노후대책도 없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당리당략에 따른 투쟁만을 일삼고 있고, 정부는 결코 나쁘지 않은 성적표를 강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자동차를 비롯한 대기업들의 세계 시장점유율이나 영업이익도 크게 늘어나 연봉의 몇백 퍼센트를 성과급으로 지급한다고 아우성이다.

한쪽에서는 풍년에 배가 터져 죽고, 다른 쪽에서는 흉년이 들어 굶어 죽는 상황이 이와 다를까? 성장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과실은 소수의 일부 계층에만 집중되는 상황…. 적어도 다수의 국민이 양극화를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한국사회의 현주소다.

현 정부가 양극화의 위협에 대해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사회통합위원회나 동반성장위원회 등 대통령 특별위원회를 통해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고 중소·대기업 간 공생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질서를 해치는 대기업의 행태를 막기 위해 노력했고 대통령도 물가안정, 전통시장 활성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 등 공정사회와 공생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적극 추진했다. 이 정책들이 가시적 성과를 나타냈다면, 그래서 국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은 조금은 완화될 수 있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불행히도 많은 정책이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나 정부의 일방통행적 추진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해관계자들의 소통은 정책성공의 요건

일자리나누기를 예로 들어 보자.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길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을 줄여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것은 누구도 반대하기 어렵다.

하지만 많은 근로자를 새로 충원할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이 늘고 노동유연성은 줄어든다. 그동안 초과근무 수당을 자신이 당연히 받아야 할 연봉의 일부로 생각해 왔던 근로자들은 일정부분 이를 포기해야 하는 자기희생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노사정 협의가 필수적이며, 결국 합의가 되지 못하면 현실화하기 어렵다.

노사정 합의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필수적인데, 불행히도 우리 노사정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신뢰가 없다면 스스로의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는 인센티브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이해관계자들과의 별다른 소통 노력도 없이 일자리나누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과연 이 정책이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국민이 체감하기 어려운 정책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더욱 떨어뜨린 것이다. 정말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정책효과가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도록 하는 것, 그것이 '결코 나쁘지 않은 성적표'에 대한 국민의 허탈함과 배신감을 줄일 수 있는 길일 것이다. G

글·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조선DB

정부는 지난 4년간 여러 분야에 걸쳐 '나쁘지 않은 성적'을 냈다고 말하지만 국민들은 오히려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느끼고 있다. 정부는 남은 1년여의 시간 동안 국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사진은 시설정비와 온누리 상품권 발행 등의 정책으로 활기를 되찾고 있는 전통시장.

황정민은 선이 굵은 연기뿐 아니라 순박하고 귀여운 연기도 능수능란하게 해낸다.

영화 〈댄싱퀸〉에서 순박하고 귀여운 캐릭터 황정민

"오랜만의 전체관람가 가족영화 기뻐"

황정민이 돌아왔다. 지난 작품들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역을 주로 맡아온 그가 새 영화 〈댄싱퀸〉에선 순박하고 귀여운 남자로 분했다. 어깨에 힘을 쫙 뺀 황정민의 연기는 벌써부터 관객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최근 선보인 영화 〈댄싱퀸〉이 개봉 11일 만에 2백만 관객을 동원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 흥행의 뒤편에는 황정민과 엄정화라는 두 연기파 배우가 있다. 황정민과 엄정화의 유쾌한 호흡은 영화를 끌어나가는 원동력이다.

"잘 어울리죠, 저희? 저도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웃음)." 두 배우는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에서 처음 만난 이후 〈오감도〉에서도 호흡을 맞췄다. 세번째 만남답게 두 사람은 〈댄싱퀸〉에서 완벽한 연기호흡을 선보인다.

지난 1월 초 열린 영화 〈댄싱퀸〉 기자간담회에서 황정민은 "처음 만났을 때는 조심스러웠지만 (엄정화와) 이내 친해졌다"며 "이번 작품을 하면서는 서로 정말 편하게 지냈다"고 말했다. 촬영 현장을 지켜본 스태프들은 두 배우의 찰떡 호흡에 배꼽을 잡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한다. 간담회 현장에서도 그의 얼굴엔 내내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황정민은 "(엄정화와 나의) 좋은 관계가 좋은 작품을 만들었다"며 겸손하게 말했다. 그러나 영화를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댄싱퀸〉의 흥행이 두 배우의 뛰어난 연기력 덕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댄싱퀸〉에서 황정민은 평범한 소시민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인생 역전의 계기를 맞는 '황정민' 역을 맡았다. 영화 속 정민은 소시민들의 고충을 덜어주는, 못 나가지만 순박한 변호사다. 그는 지하철역에서 남이 떠밀어 얼떨결에 취객을 구한 후 국민영웅으로 유명세를 타며 차기 서울시장 출마를 제의받는다. 정민의 부인인 아내 '정화'는 댄스가수가 되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자 꿈이다. 사생활 하나하나가 대중에 노출되는 정민에게 부인이 댄스가수를 꿈꾼다는 것은 굉장한 부담이다. 정화는 평범한 사모님과 가수 연습생을 넘나들며 이중생활을 하고, 이런 코믹한 설정은 관객들에게 긴장감과 동시에 따뜻한 웃음을 선사한다.

〈댄싱퀸〉에서 시장후보로 나선 순박한 변호사 역을 맡은 황정민은 엄정화와 완벽한 연기호흡을 보여준다.

엄정화와 찰떡궁합 "막 내질러도 연기 되더라"

황정민과 엄정화는 영화에서 자신의 실명으로 연기를 한다. 〈댄싱퀸〉의 이석훈 감독은 실명을 쓰게 된 계기에 대해 "작업을 시작할 때 황정민과 엄정화 같은 사람들을 모델로 놓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며 "그래서 시나리오를 처음 쓸 때 '정민', '정화'라는 이름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이 감독은 촬영이 들어가기 전에 두 주인공의 이름을 다른 것으로 바꾸려고 했다.

하지만 배우들을 실제로 만나 작업을 진행하면 할수록 '정민'과 '정화'라는 이름에 애착이 갔다. "그 이름이 가장 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도가 될 수도 있겠다 싶었고요." 물론 실명을 사용하는 것이 관객들에게 또 다른 재미를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다.

이에 대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황정민은 "시나리오를 보고 처음엔 황당했다"고 털어놨다. "배우들은 캐릭터를 만나 그 뒤에 숨거나, 자신을 부정하고 가면을 쓴 채 연기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대놓고 이게 황정민이라고 하니까 숨을 곳이 없더라고요." 그는 "그런데 처음에는 어색했던 것이 엄정화와 앉아서 대사를 해보니 입에 착착 붙더라"며 "그 다음부턴 그냥 막 내질러도 연기가 됐다"고 말했다.

영화의 독특한 스토리와 기발한 발상 외에도 황정민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또 있었다. 바로 영화가 전체관람가라는 점이었다. "전체관람가라는 점이 크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조카들을 모두 불렀죠. 그동안 작품을 많이 했지만 조카들은 제 작품을 보지 못했거든요." 황정민은 "최근 〈부당거래〉, 〈모비딕〉 등의 작품을 하면서 밝은 작품에 대한 갈증이 있었다"며 "조카들이 영화를 볼 생각을 하니 더없이 설렌다"고 말했다. "가족영화를 찍고 나니 이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웃음)."

황정민은 최근 방영을 시작한 블록버스터 드라마 〈한반도〉에도 출연한다. 그는 통일 한국의 대통령인 '서명준' 역을 맡았다. 〈댄싱퀸〉에서 구수하고 순박한 매력을 드러냈다면 〈한반도〉에서는 1인자의 선 굵은 카리스마를 보여줄 각오다.

드라마에선 통일한국의 대통령 연기

상대역은 배우 김정은으로, 두 사람은 각각 남북의 촉망받는 과학자 출신으로 훗날 통일 한반도의 대통령 부부가 된다. "통일이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드라마를 통해 미리 그려볼 수 있다는 것에 흥미를 느꼈어요. 대통령 연기는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지만 대통령도 어차피 직업이니까요. 대통령도 한 가정의 아버지이고 한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라고 생각합니다."

황정민은 오는 4월 이후 크랭크인할 영화 〈신세계〉에서 최민식, 이정재와도 호흡을 맞출 예정이다. 특히 평소 함께 연기하고 싶은 배우로 꼽았던 최민식과 호흡을 맞춘다는 사실에 그는 한껏 들떠 있다. "이번 영화에서 세 배우가 모이면 강렬한 에너지가 뿜어져 나올 것 같아요.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벌써부터 궁금합니다." 〈신세계〉는 '한국판 무간도'로 알려지며 충무로 관계자들과 영화팬들의 기대를 모은 바 있다.

글·박소영 (주간조선 기자)

3년간 야학교사 봉사 경기도의회 공석성 주무관

"만학 학생들에게 세상 이치 배웁니다"

경기도의회 총무담당관실에서 근무하는 공석성(50) 주무관은 일주일에 두 번 '선생님'이 된다. 2008년부터 수원시 고등동 '푸른빛 평생학교'에서 야학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것. 소중한 시간을 쪼개 배움을 나누는 것으로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그는 오히려 자신이 세상 살아가는 이치를 배운다며 웃는다.

경기도의회

우연한 계기로 '야학 선생님'이 된 공석성 주무관은 공무원으로서의 생활뿐 아니라 고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의 생활도 중요하다고 말한다. 공 주무관은 3년여간 단 한 번도 수업을 쉰 적이 없을 정도로 열성적이다.

"선생님, 지금 설명한 게 2가 6번 곱해진다는 뜻 아니에요?"

8개의 책상이 놓인 아담한 교실에서 김명자씨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선생님에게 묻는다. "지수법칙은 공식의 특징을 잘 살펴보고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선생님은 칠판에 '2×2×2×2×2×2'라고 써 보였다. 그제야 김씨는 "그렇게 써 주시니 이제 알겠네요"라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학생이 양복 차림을 한 중년 선생님보다 나이가 더 많아 보인다.

여느 교실 못지않게 진지하게 수학 수업을 하고 있는 이곳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수원 푸른빛 평생학교' 야학교실이다. 이곳의 선생님이 바로 공석성 주무관이다.

1990년 공직에 입문해 현재 경기도의회 총무담당관실에서 근무하는 공 주무관은 지난 2008년 10월부터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야간학교인 푸른빛 학교에서 중학교 과정을 가르치고 있다. 월급도, 수고비도 나오지 않는 무료 봉사지만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수업에 빠져 본 적이 없다.

수업 집중하는 학생들 보면 짜릿한 보람

공 주무관이 이곳에서 강의를 시작한 것은 당시 푸른빛 학교에서 야학교사로 일하던 동료의 권유 때문이었다. 야학에서 수학 과목은 대부분 인근 성균관대학교 학생들이 가르쳤는데, 군 입대 등으로 자주 결원이 생겨 안정적인 교사 확보가 절실했다.

한양대학교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고, 학교와 걸어서 10분 거리인 도청에서 근무하는 그가 수학 교사로는 적임자였다. 동료의 부탁에 그는 흔쾌히 야학교사 일을 맡았다. 그는 "뭐 별다른 사명감도 아니고, 그냥 좋은 일 한번 해 보자는 생각으로 시작했다"고 덤덤히 말했다.

야학에서 그가 처음 맡은 과목은 수학이 아닌 과학이었다. 공학 전공자였지만 수십년 만에 다시 책을 펼쳐본 터라 첫 수업부터 쉽지 않았다.

더구나 과학은 하나의 과목이 아니라 지구과학, 일반과학, 물리, 화학 등 다양한 분야가 섞여 있어 외워야 할 내용도 많았다. 특히 지구과학은 화강암·편마암 등 암석의 종류와 특징을 외우느라 며칠 밤을 새워야 했다.

"첫 수업을 위해 일주일 전부터 하루 7~8시간씩 참고서와 인터넷을 뒤지며 준비를 했는데 수업 전날에는 너무 긴장해 잠까지 설쳤죠."

하지만 공 주무관은 "태양계 행성에 대해 설명하는 수업에서 2명의 학생이 우주에 관한 내용에 신기해하며 집중하는 모습에 짜릿한 보람을 느꼈다"고 했다.

2개월 뒤부터는 과학과 수학을 함께 맡아 일주일에 4시간씩 강의를 했다. 그러나 직장 일과 수업을 병행하기가 힘들어 6개월째부터는 일주일에 2차례 수학만 담당하고 있다.

조선DB

공석성 주무관이 푸른빛 평생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다. '기본부터 충실하게 배우자'는 공 주무관의 지도관은 학생들 사이에서도 신뢰가 깊다.

수업을 위해 책을 보는 일이 잦아지고 귀가가 늦어지면서 처음에는 가족들이 의심을 하기도 했단다. 하지만 그가 하는 일을 알고 난 후부터는 둘도 없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다.

지방출장 가도 수업은 한 번도 안 빠져

현재 4명의 학생이 있는 푸른빛 학교 야학반은 늦은 나이에 공부하기를 원하는 40~60대 만학도들의 배움터다. 지금까지 30여 명이 그의 가르침을 받았다. 제자가 많아지니 기억에 남는 제자도 많다.

"한번은 대입 검정고시를 준비한다는 30대 후반 주부가 기초를 다지겠다고 수업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미 고입 검정고시를 합격한 분이라 중학교 과정 수업에서 매번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곤 했지요. 제가 얼마나 긴장이 되던지…"

이휘수(49) 푸른빛 학교 교장도 공 주무관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공 선생님은 8명의 야학교사들 중 가장 나이가 많지만 늘 묵묵히 진심으로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한 번은 충청도로 지방출장을 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수업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저녁 늦게 학교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께서 '지금 가고 있으니 기다려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열정 덕분에 공 주무관은 학생들 사이에서 큰 믿음을 주고 있다.

"한 교실에 학생이 5~6명이 전부이지만 대부분 40대를 넘긴 고학생들인 데다 각자 직업을 갖고 있어 수업시간을 바꾸기 어려워요. 게다가 중학교 과정을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모두 가르쳐야 하는데, 한 번이라도 수업을 거르면 학생들이 진도를 따라오지 못하지요."

공 주무관은 "학생들과의 시간을 지키는 것 또한 선생으로서 당연히 할 일"이라며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손사레를 쳤다. 그는 지금도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들과 명절이나 연말이면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는다. 그게 강의를 이어 가는 데 큰 힘이 자 보람이다.

매일 새벽 4시부터 교회 관리 일을 한다는 류화주씨는 "힘든 생활 속에서도 야학에 나와 배울 수 있다는 사실에 늘 감사한다"며 "이해할 때까지 자상하게 가르쳐 주는 공 선생님 덕분에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 한국민속촌에서 일하는 김명자씨도 "고된 일을 마치고 나면 하루쯤 야학에 빠지고 싶다가도 아무 대가 없이 열심히 가르치는 공 선생님이 떠올라 교실로 오게 된다"며 공 주무관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공 주무관은 "가르치기 위해 야학에 오지만 40~60대 학생들과 수업을 하다 보니, 오히려 내가 세상 살아가는 이치를 배운다"며 "여건이 허락하는 한 계속 푸른빛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다. G

글·양희동 (조선일보 사회부 기자)

건축디자인연구소 연 고교 중퇴 학력 임광일씨

"확실한 실력에 인성 갖추면 뭐든 이루죠"

가난한 바닷가 마을의 열일곱살 소년은 어느 순간 세상 모든 게 식상해졌다. 소년은 1백만원을 들고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다. 서울 생활은 만만치 않았지만 지독하게 노력했다. 그로부터 십이년뒤 스물일곱 청년은 어엿한 인테리어 업체의 대표가 되었다.

고등학교 중퇴가 최종 학력인 임광일씨는 '학력은 인생의 큰 틀이 될 수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산다. 덕분에 임씨는 젊은 나이에 성공을 이룰 수 있었다.

"그때는 그냥 인생이 지겨웠던 것 같아요."

임광일씨의 학창시절은 화려했다. 중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 친구들과 몰려다니며 패싸움을 벌이는 게 일이었다. 파이프와 각목은 물론 커터 칼까지 들고 싸웠다. 중학교 2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하자 가출하는 횟수가 늘어났다. 학교 친구들 집을 돌며 신세를 졌다. 여름에는 학교 교실이나 체육관에서도 잤다.

그렇게 학창시절을 무의미하게 보내던 임씨는 속초상고 1학년 때 겨울방학을 한 달 앞두고부터는 아예 학교를 나가지 않았다.

"어느 순간 모든 게 식상해졌어요. 친구들 만나서 놀고 수업 땡땡이 치고 하는 것들이 다 지겨웠어요. 틀에 박힌 생활 말고 창조적인 일을 하고 싶었어요."

임씨는 학교에 가지 않는 대신 3개월간 강릉과 동해안을 여행했다. 서점에 가서 닥치는 대로 책을 읽었다. 주로 미술이나 여행 관련 서적이었다. 문득 초등학교 시절 폐차장에 놀러 가 차 부품을 부숴 스포츠카에나 붙어 있는 '윙도어(문을 위로 들어 올릴 수 있도록 개조한 것)'를 만들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리곤 생각했다. '혹시 내가 이쪽에 재능이 있는 건 아닐까.'

건설현장 막일하며 건축도면 어깨너머 익혀

여행에서 돌아온 후 학교를 자퇴했다. 그리곤 한 달간 신문·우유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았다. 그렇게 모은 돈 1백만원을 들고 2000년 봄, 열일곱 살 소년은 홀로 서울행 버스에 몸을 실었다.

서대문구 홍제동의 두 평 남짓한 하루 만원짜리 셋방에 짐을 풀고 매일 오전 5시 근처 직업소개소로 갔다. 한동안은 나이가 어리다고 임씨에게 일감을 주지 않았다. 악착같이 찾아오는 임씨에게 질린 직업소개소 사장이 일주일 만에 첫 일감을 줬다. 경기도 안양의 주상복합건물 건설현장의 일용직이었다.

건설현장 생활은 열악했다. 6.6제곱미터(2평) 크기의 방에서 중국인 근로자 8명과 함께 생활한 적도 있었다. 그렇게 공사장에서 숙식을 제공받으며 한 달에 80만원을 벌었다.

5년 넘게 부산과 대구 등 전국의 건설현장을 돌며 이를 악물고 3천만원을 모았다. 물론 돈만 모은 것은 아니다. 꿈도 더불어 키워나갔다.

처음에는 짐 나르는 단순 작업만 하다가 어깨너머로 설계·건축기술을 조금씩 배웠다. 하루 일과가 끝나면 주워 온 설계도면을 건설현장 컨테이너 상자 안에서 수도 없이 베껴 그렸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설계도면만 보고도 건물 벽면을 배치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곁눈질로 배운 건축기사 일이 어느새 전문가에게까지 인정받을 정도로 실력이 일취월장한 것이다.

어린 나이임에도 현장에서 능숙하게 설계도면을 보며 일하는 모습을 눈여겨본 시공사 간부는 그를 스카우트했고 임씨는 비로소 건설현장을 벗어나게 되었다.

군제대 후 소상공인지원센터 도움으로 일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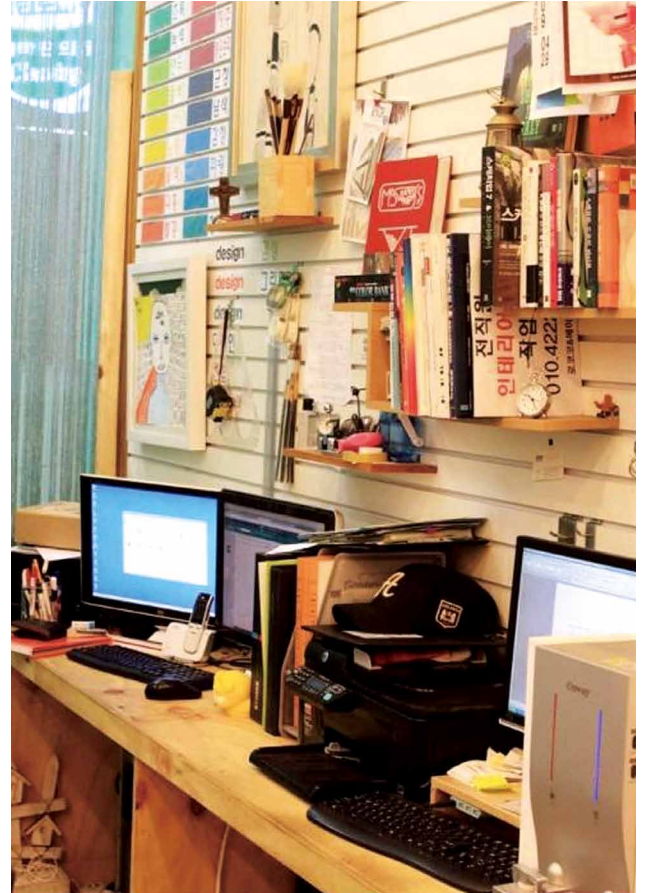
1년 동안 안정된 직장생활을 하던 임씨는 스스로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직접 사업에 뛰어들었다. 그동안 고생하며 번 돈 3천만원을 들고 건설현장에서 만난 선배와 함께 전원주택사업을 벌였다. 결과는 실패였다. 1년 만에 가진 돈을 다 날리고 손을 뗐다. 의욕은 충만했으나 전원주택을 발주한 사업가가 갑자기 포기하는 바람에 빈털터리가 된 것이다.

좌절한 임씨는 군 복무를 위해 공익근무요원으로 들어갔다. 안양구청에서 산림과 야간 경비를 서며 짬짬이 다음 사업을 구상했다. 그리고 공익근무를 마친 지난해 6월 자신의 꿈을 본격적으로 펼치기 시작했다.

임씨는 먼저 서울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1천만원을 지원받아 서울 성북구 길음역 근처에 건축·공간디자인연구소인 '에이비팩토리(AB Factory)'를 열었다.

에이비팩토리는 공간 설계부터 시공까지 부문별 전문가들이 모여 활동하는 연구소 겸 인테리어디자인 회사다. 주문이 들어오면 직원 4명이 회의를 통해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어낸다. 그 열정과 독특한 발상에 인터넷 공간에서는 마니아도 생겼다.

하지만 수입이 들쭉날쭉한 것이 문제였다. 해결책을 찾던 임씨는 서울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2천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았다. 그리곤 실내 가구·장식품 등을 판매하는 소품가게 '로코코(Rococo)'를 추가로 열었다.

다행히 로코코가 인기를 끌었다. 한 달에 1천만~1천5백만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임씨는 디자인 연구에 매진할 수 있었다.

서울시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창업한 임씨의 디자인 사무실 내부. 그리 크지 않은 사무실이지만 이 공간에는 건설현장에서 피땀 흘리며 꿈과 희망을 향해 달려온 임씨의 청춘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임씨는 "서울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각각 따로 운영하던 가게가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언해주고 재정적 지원도 해준 지원센터에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중퇴'지만 임씨는 피나는 노력 끝에 '에이비팩토리' 소장이라는 명함과 '로코코' 사장이라는 자리를 동시에 이루어냈다.

그의 꿈은 이제 두 번째 출발선에 섰다. 첫 번째 실패로 좌절을 겪은 적도 있지만 두 번째 실패가 오더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다짐한다.

"고교중퇴자라는 딱지는 스스로 깨는 거예요. 스스로 틀을 만드는 순간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확실한 실력을 바탕으로 겸손하게 유쾌하게 사람을 대하면 뭐든지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G

글과 사진·김지섭 (조선일보 사회부 기자)

고금리 탈출 도와주는 '바꿔드림론' 인기

연 8.5~12.5퍼센트로 바꿔 줘 저신용 서민들 최근 부쩍 찾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신용회복기금 '바꿔드림론'이 가계빚을 줄이려는 저신용·서민층에게 인기가 높다. 지난 2008년 12월 19일 업무를 시작한 이후 수혜자가 1월 31일 현재 8만1천6백39명(8천2백84억원)에 달한다. 하루 평균 2백50여명이 신청하고 전화와 상담창구를 통해 하루 2천여명이 문의를 해오고 있다.

'바꿔드림론'은 신용도가 낮은 서민이 대부업체 또는 저축은행 등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을 8.5~12.5퍼센트(평균 11퍼센트)의 은행 대출로 바꿔 주는 서민금융 제도이다. 특히 2011년 한해 동안에만 직전 2개 연도를 합한 신청자 수의 1.5배가 넘는 저소득·서민층이 신청했다.

장영철 캠코 사장은 "15개 광역자치단체와 서민금융 협력 MOU를 체결해 지자체의 서민복지제도와 연계함으로써 바꿔드림론 이용자 수가 크게 늘었다"며 "보다 많은 저신용·서민층이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창구도 16개 시중은행 전지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12월 경기도를 시작으로 캠코는 지난해 말까지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와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자체 복지제도 이용자들이 바꿔드림론을 신청하면 이자율을 1퍼센트포인트 추가 인하하는 혜택을 주고 있다.

1년 지나면 최고 5백만원 생활자금도 대출

캠코는 호응이 좋자 이용기회도 확대했다. 지난 1월까지는 1인당 1회만 바꿔드림론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이달부터는 바꿔드림론 채무를 다 갚고 대출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바꿔드림론을 재이용할 수 있게 됐다.

캠코는 "바꿔드림론 이용 후 저신용 등으로 불가피하게 다시 고금리 채무 부담을 지는 사례가 있어 바꿔드림론 성실 상환자에게 재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매년 4천여명이 고금리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지원 조건은 최초지원 조건과 동일하게 ①신용 6~10등급이며 ②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고 ③채무를 연체없이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어야 한다. 연소득 2천6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조선영

캠코가 운영하는 신용회복기금 '바꿔드림론'이 서민층에게 인기가 높다. 사진은 장영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이 '일일 상담원'으로 고객과 상담 중인 모습.

대출금액은 대출받은 후 6개월이 경과하고 연 20퍼센트를 초과하는 고금리대출 원금을 한도로 1인당 3천만원까지이다. 또 바꿔드림론을 이용하고 1년이 경과한 후 긴급생활자금이 필요한 경우 '캠코 두배로 희망대출(소액대출)'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연 4퍼센트의 저금리로 최대 5백만원까지 대출해 주며, 5년간 나눠 갚으면 된다.

바꿔드림론 이용시 평균 42퍼센트의 고금리 대출을 연 11퍼센트의 은행대출로 전환이 가능해 연 30퍼센트의 이자절감 효과가 있다. 즉, 1천만원을 대출받으면 연 3백만원의 이자를 절감하게 되는 셈이다. G

글·박영철 기자
문의 캠코 ☎1588-1288

바꿔드림론 이용 방법

- 캠코 본·지사와 지방자치단체 서민금융 상담창구 또는 전국 16개 은행의 대출창구 방문 신청.
- 신용회복기금 사이트(www.c2af.or.kr)로도 신청 가능.
- 신용회복기금 사이트에서 '온라인 자가진단'을 통해 지원대상 여부 조회.
- 캠코가 운영하는 사이트인 '새희망네트워크(www.hopenet.or.kr)'에서 본인의 신용등급 무료 조회.

"내년 소망을 편지에 담아 미리 보냅니다"

'온라인 타임캡슐 편지' 등장… 2월 15일까지 인터넷우체국서 접수

20대 회사원 김씨는 생일이 12월인 여자친구를 위해 타임캡슐 편지를 작성했다. "회사 일이 너무 바빠 편지를 전하는 걸 잊어버릴까봐 미리 대비해 뒀다"는 그는 "여자친구도 정성이 담긴 편지를 받고 매우 기뻐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내년에 서른인 박씨는 신중하게 2013년 새해 목표를 타임캡슐 편지에 기록했다. 그는 "직장 2년차를 지나고 보니 어느덧 서른이 눈앞에 있었다"며 "건강한 30대의 첫출발을 위한 목표를 미리 적어 놓았다"고 말했다. 온라인 타임캡슐 편지가 등장했다. 지금 편지를 부치면 온라인 타임캡슐에 보관했다가 2013년 새해를 앞둔 12월 중 원하는 날짜에 발송하는 미래형 편지다.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2월 15일까지 '느리게 가는 편지, 슬로레터' 행사를 진행한다. 인터넷우체국에서 편지를 부치면 지정한 날짜에 본인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 주는 방식이다. 연초를 맞이해서야 새해 각오를 세우거나, 번번이 새해 다짐에 실패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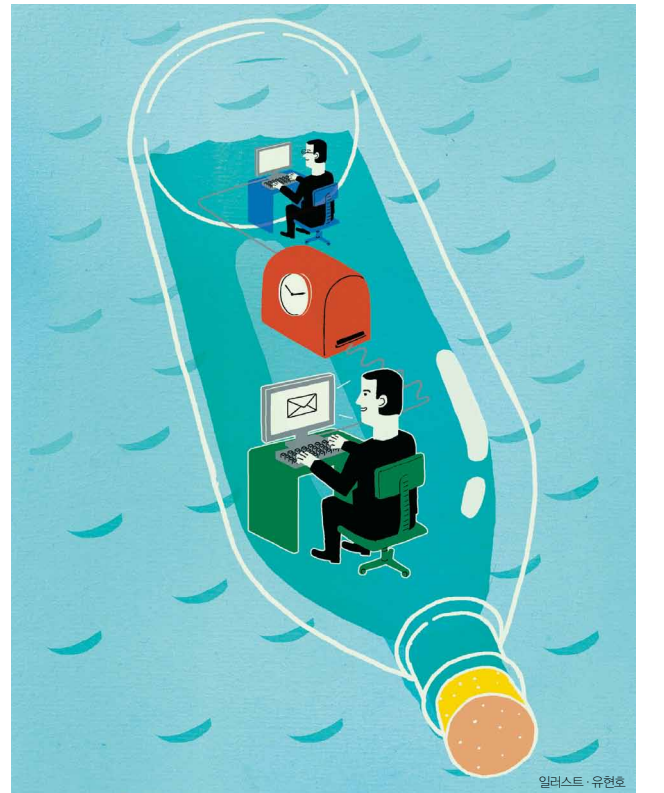
미리 작성해 놓은 타임캡슐 편지의 배달로 인해 마음가짐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셈이다. 우정사업본부 김태완(50) 우표팀장은 "새해를 앞둔 12월에 편지를 받는 만큼 미리 복을 전하는 글을 쓸 수 있다"며 "연초의 소망이나 각오를 적은 뒤 12월에 확인해 새해 다짐을 되새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러스트·유현호

"가슴 따뜻한 소통의 도구로 활용을"

온라인 타임캡슐 편지는 인터넷우체국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접수절차도 간편하다. 맞춤형편지 메뉴에 접속한 후 원하는 내용의 편지 글을 직접 입력하거나 파일 형식으로 첨부할 수 있다. 편지 내용을 작성한 뒤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적고 발송하면 된다.

이용 요금은 기본 7백30원이며 부가서비스와 편지 매수에 따라 요금이 달라진다. 결제는 신용카드·휴대전화·계좌송금으로 하면 된다. 등기요금은 범위에 따라 할인도 적용된다. 10통 이상 등기로 신청하는 맞춤형편지의 경우는 우편요금의 3퍼센트를 할인받는다.

이밖에도 다양한 선택 사항이 있다. 우편물 종류는 보통일반우편·보통등기우편으로 나뉜다. 우편물 봉투는 대형봉투와 소형봉투 두 가지 중 택일 가능하다. 우표도 직접 지정할 수 있다는 점이 색다르다. 이용자는 보통우표나 나만의우표 등 우표류를 선택할 수 있다. 단 우표류 첨부 서비스 이용 시 통당 각 30원이 가산된다.

2월 15일까지 '슬로레터' 편지를 쓰면 68명을 추첨해 3명에게는 30만원 상당의 우체국쇼핑 특산품, 65명에게는 2만원 상당의 2011년 연차우표첩을 경품으로 준다. 당첨자 명단은 2월 29일 인터넷우체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명룡(55) 우정사업본부장은 "온라인 타임캡슐 편지는 느림의 미학과 소중함을 일깨울 것"이라면서 "빠른 것만을 추구하는 시대에 국민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는 소통의 도구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G

글·김이슬 인턴기자
문의 인터넷우체국 www.ePOST.kr

불법저작물 No!… '저작권 지킴이' 떴다

장애인 1백명 24시간 재택 모니터링… 실버감시단 20명은 불법복제물 노점상 감시

"엊그제 개봉한 그 영화 있죠? 벌써 P2P 사이트에 떴더라고요. 삭제되기 전에 얼른 다운로드받으려고요. 최신음악요? 친구가 메신저로 보내 준다고 했어요."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보편화하면서 저작권에 대한 문제는 하루가 다르게 확대되고 있다. 문제는 알게 모르게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것이다. 저작권 침해는 남의 집에서 물건을 몰래 훔치는 것과 다름없는 범죄행위다.

불법복제로 인한 합법시장 침해 규모는 2010년 총 2조1천여억원에 달한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사용 급증, 소셜미디어 활성화 등에 따라 불법복제물 이용 행태가 다변화하고 음성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부터는 온라인상에서 불법으로 콘텐츠를 다운로드하거나 문서, 사진 등을 복제해 사용하는 일이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다. 장애인들과 60세 이상 노인들이 불법저작물을 단속하는 '저작권 지킴이'로 나선 덕분이다.

지난 1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이 주관해 올 한 해 동안 활약할 장애인 재택 모니터링 요원 1백명과 60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실버감시단 20명이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누구나 불법을 신고할 '국민 오픈 모니터링'도 계획

장애인 재택 모니터링 요원들은 주말과 공휴일,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24시간 모니터링하며, 불법저작물 발견 시 저작권보호센터가 개발한 캡처 프로그램을 이용해 증거를 수집한 뒤 센터에 보내는 역할을 한다.

주요 모니터링 대상은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소프트웨어 등 6개 콘텐츠 분야로 특화해 ▲3백80여 개의 특수 유형 OSP(온라인서비스 제공자) ▲8백만 개의 카페, 블로그 등 폐쇄형 커뮤니티 ▲토렌토, P2P 등 신규 유형의 불법저작물 사이트 등이다.

장애인 재택 모니터링은 2011년에 음악·영상 등 각 분야에서 8천45만여 점의 불법저작물을 삭제하였으며 피해예방 규모는 약 73억원에 달한다. 또한 장애인을 감시단으로 채용하면서 사회적 취약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효과도 거두고 있다.

일러스트 · 박용인

장애인 모니터링 요원이 사이버 공간을 책임진다면 60세 이상 실버 감시단은 오프라인 현장을 담당한다. 지하철역 주변을 비롯해 대학가 복사업소, 인쇄소, 서점 등의 오프라인 현장에서 문서, DVD 등 불법복제물을 판매하는 노점상 등을 제보하게 된다.

또 2월부터는 지난해 하반기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국민 오픈 모니터링'을 본격적으로 도입해 국민 누구나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불법복제물을 감시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 오픈 모니터링'은 온라인의 국내 웹하드·P2P 사이트 내에서 불법저작물을 발견하면 한국저작권위원회 불법복제물 신고 사이트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문화부는 PC용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와 스마트 기기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누구나 보다 쉽게 불법저작물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G

글 · 손수원 기자

문의 한국저작권위원회 신고 사이트 www.copy112.or.kr

'잡스의 유작' 애플 스마트TV 과연 뜰까?

2012년 IT트렌드…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생태계가 중심이 될듯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 사후 첫해인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IT 트렌드를 예측하기 힘든 해다. 사실 여태까지 그것은 잡스가 발표회장에 들고 나온 새로운 기기가 이끌어 왔다. 애플의 신제품은 즉각 새로운 IT 트렌드로 부상하고 전 세계 기업들이 이를 따라 하기 바빴다. 하지만 앞으로 애플이 얼마나 혁신적인 제품을 가지고 나올지 의심스럽기도 하다. 잡스가 없는 세상을 주도할 IT 트렌드를 살펴보기로 하자.

대세가 된 클라우드

콘텐츠 소비위주 환경에 맞춰 일반화 단계

클라우드란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될 수 있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인터넷에 있는 콘텐츠를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뜻한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모바일 환경에서는 특히 클라우드가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콘텐츠 소비 위주의 환경이라 다양한 콘텐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영화와 음악, 책 등을 기기에 담기보다는 클라우드에 올려놓고 즐기는 형태가 될 것이다.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PC 환경도 점차 클라우드로 변해 갈 것이다. 윈도 다음 버전에는 클라우드 기능이 기본으로 내장되게 된다. 작성한 문서들을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여러 사람과 협력 작업도 쉽게 할 수 있다. 더 이상 데이터 백업을 위해서 하드디스크를 구입할 필요가 없다. 3중 백업이 기본인 클라우드가 훨씬 안전하고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이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용자들은 복잡한 구조를 알 필요가 없게 되는 반면 사용하기는 더 쉽고 편리해진다. 현재도 모바일에서는 사진을 찍고 메모를 하고 문서를 편집하기만 하면 된다.

클라우드가 자동으로 파일을 알아서 백업하고 고친 부분을 버전별로 관리해 주고 있으니까. 필요하면 자동으로 다른 컴퓨터에 동기화하기도 한다. 클라우드란 이제 생산한 콘텐츠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고 원할 때면 언제 어디서 어떤 기기로도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일반적인 환경이 되어 가고 있다.

조선DB

스티브 잡스가 사망한 후 전 세계 IT 트렌드도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 최근의 IT 트렌드는 하드웨어의 고성능, 경량화뿐만 아니라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사용하는 모바일 환경과 소프트웨어 등이 부각되고 있다. 사진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나오는 태블릿 PC와 스마트폰 제품들.

모바일 앱과 웹의 결합

웹앱 방식 늘어 웹브라우저 표준준수 필수

모바일 기기 사용자가 많아지면서 웹 페이지도 바뀌고 있다. 다양한 기기를 지원하려면 표준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 플래시 같은 복잡한 기술보다는 단순한 디자인을 선호하게 된다. 기기가 다양해질수록 스마트폰 전용의 앱보다는 웹 브라우저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웹앱 방식이 늘어나게 된다.

웹 브라우저의 표준 기술을 사용하도록 웹 페이지를 만들면 기기가 달라도 문제 없이 사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웹 브라우저에 점점 더 많은 기능이 들어가고 차세대 웹 표준인 HTML5도 활성화되고 있다.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가 국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 익스플로러에서만 동작하는 액티브엑스와 같은 비표준 방식을 버리고 표준을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거부할 수 없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좋든 싫든 페이스북·트위터에 관심 불가피

일시적인 유행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페이스북의 사용자 수가 2011년 9월에 8억명을 돌파함으로써 이제 인터넷의 대세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가 되고 있다. 프라이버시 존중과 표현의 자유가 중시되던 인터넷 환경이 SNS로 인해 자발적 실명제로 바뀌고 있다.

SNS는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돈다는 철학을 절묘하게 서비스로 구현한 것이다. SNS에 로그인하기만 하면 내 전용 페이지에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있는지, 누가 내 글에 반응했는지를 바로 알 수 있다. 이제 사람들은 포털이나 게시판에 콘텐츠를 쌓지 않는다.

개인적인 이야기는 페이스북에 올리고 최신 뉴스는 트위터로 전달한다. 페이스북이 한국인 사이트 체류 시간 1위를 달성하고 싸이월드와 3, 4위를 다투고 있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한국인들의 특성과 어울리기 때문일 것이다.

하드웨어의 고성능 경량화

모바일 화면은 커지고 CPU 코어는 4개까지

모바일 분야에서의 성능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질 것이다. 안드로이드 진영은 애플에 비해 훨씬 자주 더 다양한 신제품을 발표하고 있다.

CPU 코어 개수가 4개까지 늘어날 예정이고 화면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 4인치부터 11인치까지 사용자의 다양한 기호에도 대응하고 있으며 손가락 입력 방식 외에 펜 입력까지 지원하고 있다. 구글은 새로운 운영체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는 삼성의 괴물 같은 하드웨어와 구글의 최신 운영체제로 무장한 안드로이드폰이 대세를 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3.5인치의 LCD가 사람 손 크기에 가장 적당하다고 고집하던 잡스가 없는 지금 애플은 결국 4인치 이상의 아이폰5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쟁력의 핵심은 콘텐츠

하드웨어 손해 보고 파는 '아마존 방식' 두각

이제 하드웨어 경쟁은 끝났다. 더 이상 하드웨어적인 차별 요소를 만들 수 없다. 앞으로는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생태계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트렌드를 가장 먼저 파악한 곳이 아마존이다. 아마존은 아예 콘텐츠를 소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성능을 가진 최저가 태블릿을 만들어 손해 보고 파는 승부수를 던졌다.

아마존의 킨들 파이어는 승승장구하던 애플의 아이패드와 경쟁할 수 있는 최초의 제품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경이적인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 더 많은 하드웨어가 팔릴수록 더 많은 콘텐츠가 소비될 것이다. 따라서 아마존은 애플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할 것으로 예측된다.

입력 기능의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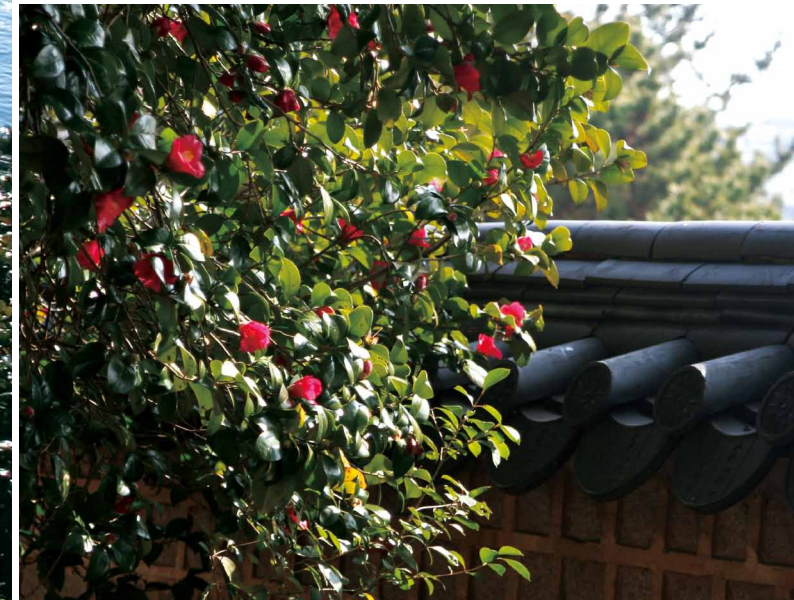
잡스의 새로운 스마트TV 인터페이스는 뭘까?

아이폰의 멀티터치가 입력 기능의 역사를 새로 쓴 후 모바일 기기에는 중력 센서, 기울기 센서, 조도 센서 등 다양한 입력 수단이 갖춰졌다. 덕분에 손가락으로 화면을 조작하는 것 이외에도 흔들고 기울여서 기기를 조작할 수 있게 되었다. 아이폰의 시리란 음성인식 기술은 또 한 단계의 도약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좀 더 다양하고 편리한 입력 수단이 등장하겠지만 그중 가장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은 애플이 발표할 스마트TV의 새로운 입력 기능이다. 여태까지 스마트TV는 다양한 기능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입력 방법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리모컨을 능가할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고 있다.

하지만 스티브 잡스는 죽기 전에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방법을 드디어 찾아냈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가 찾아낸 방법은 어떤 것일까. 2012년, 잡스의 유작인 애플의 스마트TV가 과연 세계를 놀랠 것인가 하는 것이 마지막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G

글·김인성(IT 칼럼니스트)

해금강의 동백숲과 남해 바다가 아름다운 풍경을 빚어 낸다. 움츠려 있던 동백도 하나둘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다.

겨울의 끝자락에 핀 빨간 동백꽃.

거제 동백꽃

겨울 끝자락에 핀 동백 꽃망울 봄처녀 마음만큼 붉디 붉어라

봄은 남쪽에서 온다. 그리고 봄이 오는 곳에는 언제나 동백이 먼저 핀다. 올해도 겨울 끝자락에 동백꽃 소식이 들려 왔다. 보통 동백꽃은 여수 오동도에서 꽃망울을 터트리기 시작해 거제도 해금강과 충남 서천 춘장대 동백 숲까지 이어져 붉은 동백이 봄을 알린다. 이른 봄 마중을 나서고 싶고 따뜻한 남쪽나라가 그리워 붉은 동백을 만나러 거제도로 간다.

겨울이 지겨워서, 봄이 그리운 사람들에게 이즈음 통영과 거제도는 참 괜찮은 곳이다. 통영을 지나 거제대교를 넘으면 어느덧 봄이다. 거제도로 동백꽃구경 가는 길은 따사롭다.

거제도의 학동해변과 해금강 주변에는 2천여 그루의 자생 동백이 자라고 있다. 10월부터 시작해서 동백꽃이 절정을 이루는 다음 해 3월까지 피고 지기를 거듭한다. 이렇게 힘들게 꽃을 피우는데, 거제도의 바람은 곰살궂지 않다.

며칠 전에는 눈이 내려 봄볕에 먼저 핀 동백꽃이 얼었다. 꽃이 피지 않은 숲은 어둡지만 햇살이 살짝 비집고 들어오는 나뭇가지 사이를 유심히 들여다보면 동백이 꽃망울을 터뜨린 것을 볼 수 있다.

동백나무가 팔뚝 굵기로 크는 데는 1백년의 세월이 걸린다고 한다. 오동도 동백 수령은 오십살부터 삼백살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어린 나무나 고목이나 꽃은 똑같이 붉다. 수줍게 벌린 꽃망울은 이제 막 화장을 시작한 소녀의 입술 같다. 봄기운에 오동도 동백은 들떠있다. 곧 만개하리라.

여수 오동도·서천 춘장대 뺨치는 풍광 자랑

동백꽃은 꽃이 지고 난 후에도 아름답다. 동백은 벚꽃처럼 지지 않는다. 장미처럼 핀 자리에서 시들지 않는다. 피어 있는 그대로 꽃송이가 통째로 뚝 떨어진다. 그래서 사람들은 동백꽃 떨어지는 것을 여인의 눈물에 비유한다. 동백꽃이 떨어지는 소리는 분명 떠나는 발길을 잡는다. 떨어지는 소리에 한 번 더 돌아보게 된다.

몇 해 전 거제도에 온 적이 있다. 섬의 첫인상이 깨끗했던 기억이 난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 다시 찾은 거제도. 추위를 피해 따뜻한

남쪽나라에 온 것처럼 마음이 푸근하다. 이른 봄에 거제를 찾는 여행객은 많지 않다. 그래서 한적하게 여행하기 좋다.

눈부시게 파란 바다 풍경에 마음까지 깨끗해지는 기분이다. 사람도 첫인상이 좋으면 기억에 남는 법인데 여행지도 그렇다. 그래서 마음이 편해지는 여행지는 다시 찾아도 기분이 좋다. 거제도가 꼭 그런 곳이다.

대전~통영 고속도로를 따라 달려온 4시간30분 정도가 그리 멀지 않게 느껴진다. 섬이라고는 하지만 거제대교를 넘어서면 고층건물이 운집한 시가지가 먼저 나타나기 때문에 섬이라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는다.

하지만 장승포를 지나면서 만나는 해안도로를 달리다 보면 어느덧 푸른 바다가 눈앞에 펼쳐진다. 입춘이 지나자 바닷바람이 따스하게 거제도를 감싼다. 오래된 팝송에 귀를 적셔도 좋고 차창을 열고 따뜻한 봄 내음을 즐겨도 좋다.

봄이면 거제의 바다와 동백이 절묘한 조화를 이룬다. 거제대교를 건너 거제도에 들어서면 도로에 가로수처럼 늘어선 동백이 여행객을 반긴다. 거제도 중에서도 장승포에서 20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학동마을의 동백 숲(천연기념물 제233호)과 해금강의 울창한 동백 숲이 화려하다.

거제대교의 야경과 싱싱한 회, 해물뚝배기 등 남해 맛 여행도 즐겁다.

학동 몽돌해변의 동백꽃을 먼저 만난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학동해안의 수백 그루의 동백나무가 길을 따라 늘어서 있다. 3만여 그루의 동백나무가 자생하는 거대한 숲이다. 2월말이면 이곳의 동백나무는 일제히 꽃을 피운다. 서서히 꽃망울을 피워내기 시작하는 동백이 유난히 붉다. 바람이 거센 탓에 꽃봉오리가 큰 동백꽃은 드물지만 가지를 넓게 펼친 동백나무들이 바다 쪽으로 고개를 내밀고 있다.

학동 몽돌해변 따라 이어지는 동백나무숲

진초록 잎사귀 사이로 붉은 속살을 드러내는 동백꽃. 동백꽃은 그 붉고 선명한 색상대비로 강렬한 인상을 준다. 눈부시게 파란 바다와 어우러지면 새색시의 연지곤지처럼 야릇한 매력이 느껴진다.

학동 동백 숲은 예로부터 유명한 동백 군락지였다. 하지만 나라에서 큰일을 당해 이곳으로 유배 온 사람들이 동백꽃을 마뜩찮게 생각해 많이 뽑아냈다고 한다.

화려하게 피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목이 잘리듯 떨어지는 꽃송이가 서글픈 느낌을 준다는 게 이유였다. 다시 거제도 곳곳의 동백꽃이 화사해진 것은 거제시에서 아름다운 숲으로 지정하고 동백나무를 꾸준히 심고 가꾼 덕이다.

해금강 입구에서 만난 동백도 인상적이다. 해금강호텔 앞의 동백 숲에 만개한 동백꽃이 많다. 여행객들도 해금강으로 내려서다 동백꽃과 동박새를 보며 화사하게 미소를 짓는다.

거제의 동백 여행은 학동 동백 숲에서 출발해 해금강을 거쳐 여차해변으로 가는 길이 편하다. 이 길은 에메랄드빛 파다를 곁에 두고 이어진다.

화사한 햇살을 받으며 드라이브를 즐기다가 바다가 보이는 언덕이 나오면 차를 멈추면 된다. 파란 바다를 바라보며 치마폭을 들썩이는 봄바람처럼 붉은 사랑을 품어 본다. 해안도로를 따라 달리는 자동차의 질주가 경쾌해 보인다.

한려수도 앞 '바람의 언덕'은 또다른 비경

지중해가 부럽지 않은 한려수도의 풍광을 만날 수 있는 바람의 언덕도 들러보자. 해금강테마박물관 앞 삼거리에서 도장포선착장 방면으로 들어가면 또 다른 비경을 만난다.

도장포선착장 안쪽 끝에서 나무 계단을 올라가면 이국적인 풍경의 초록빛 언덕이 나타난다. 이곳은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이름 없는 조용한 곳이었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거제 8경 중 하나로 선정됐다. 바람의 언덕은 한반도의 아래쪽 부분과 다소 비슷한 모양으로 늘어선 바닷가 언덕으로 초록빛 잔디가 자라고 있어 휴식 공간으로 많은 여행객이 찾는다.

그 이름처럼 거제도 앞바다에서 불어오는 거친 바람이 이 언덕에서 숨을 고르며 잠시 쉬어 간다. 언덕에는 방목된 흑염소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여유롭다. 바람의 언덕 아래쪽 끝에는 초록색 등대가 세워져 있어 작은 드라마 세트장처럼 시선을 묶어둘 정도로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한다. 바로 드라마 〈회전목마〉의 타이틀 장면을 촬영한 곳이다. 바람의 언덕은 드라마 〈순수의 시대〉, 영화 〈종려나무 숲〉의 촬영지이기도 하다.

거제도에서 바다 구경에 슬슬 질렸다면 거제 자연휴양림에 들러 보는 것도 좋다. 녹음이 우거진 길을 산책하며 신선한 음이온을 마음껏 마시고, 숲 속 산장에서 1박을 하며 쉬어 갈 수도 있다(사전 예약 필수).

산장 외에도 휴양림 안에는 등산로와 산책로, 야영장 등의 편의시설이 완비돼 있어 가족끼리 편하게 즐길 수 있다. 산 정상의 전망대에서는 거제도 전경과 한려해상의 작은 섬들이 한눈에 들어오며, 날씨가 맑은 날엔 멀리 현해탄과 대마도도 구경할 수 있다. G

글과 사진 · 유철상 (여행작가)

거제 해금강의 기암절벽. 유람선을 타고 둘러볼 수 있다(왼쪽 사진). 바람의 언덕에서 내려다 본 신선대. 영화와 드라마의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여행수첩

찾아가는 길 대전~통영 고속도로를 이용해 동통영IC로 빠져나와 거제대교를 넘은 뒤 14번 국도를 달린다. 4차선으로 확장된 14번 국도가 장승포까지 이어진다. 장승포에서 해안도로를 타고 20킬로미터 정도 달리면 학동 삼거리. 식당과 호텔이 몰려 있는 삼거리에서 1킬로미터 정도 더 가면 동백 숲이 양쪽으로 펼쳐진다. 해금강의 동백 숲도 아름답다.

먹을 곳 해금강호텔 바로 옆에 있는 **천년송횟집**(☎055-632-3118)은 신선한 자연산회와 홍합죽으로 소문난 맛집. 신선한 해산물이 입맛을 돋우고 해금강 일대가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자연산 우럭회 5만원, 홍합죽 1만원, 해산물 모둠 5만원.

잠잘 곳 학동 몽돌해수욕장 주변에 숙박업소가 몰려있다. 이 중에서도 객실에서 바다가 보이고 최신식 시설을 갖춘 곳은 **하와이콘도비치호텔**(☎055-635-7114)이다. **해금강호텔**(☎055-632-1100)도 객실에서 바다가 보이고 호텔 앞에 동백 숲이 펼쳐진다. 숙박요금은 특실기준 7만원~9만원선.

즐길거리 학동에서 해안도로를 따라 자동차로 5분만 달리면 거제의 명승지 해금강이 나온다. 해안도로는 하늘보다 파란 바다가 펼쳐지고 해금강 직전에 있는 전망대에서 해금강을 내려다보는 전망도 좋고, 유람선을 타고 해금강을 둘러볼 수 있다.

“매사 근신”… 이 남자가 사는 법

중·고등학교 시절 정학 바로 아래의 처벌이 근신(謹愼)이다. 그러나 조선시대 때 근신은 모든 신하의 마땅한 도리였다. 현대인들은 근신했던 인물보다는 정도전처럼 왕권에도 도전하는 모습을 좋아하지만 당시로 돌아가 본다면 왕권에 도전한다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것이나 다름 없었다.

이런 근신하는 자세를 보여준 인물이 수없이 많지만 여말선초(麗末鮮初)라는 격변기에 근신하며 바른 길을 걸으려 노력했던 사람으로 **김여지**(金汝知·1370~1425)를 꼽을 수 있다.

그는 스무살이던 1389년(고려 창왕 1년) 문과에 장원급제했다. 곧바로 사헌부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말을 과격하게 하다가 전라도로 잠시 유배를 가야 했다. 그러나 심각한 일은 아니었던지 이듬해 풀려나 사간원에 복귀했고 이때 정도전과 악연을 맺게 된다. 정도전을 탄핵했다가 오히려 본인이 파면당했다.

이로 인해 조선개국 과정에서 김여지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1392년(태조 1년) 경주를 관할하는 계림부 판관으로 있을 때 정도전의 미움을 받아 근처로 유배 온 이종학을 온 몸을 다해 구했다. 이종학은 김여지를 과거에서 뽑아준 좌주(座主)였다. 조선시대 들어 엄격히 금지됐지만 고려 때 좌주와 문생의 관계는 부모 자식 관계보다 끈끈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정도전이 그냥 두지 않았다. 조정에서 말하기를 “공양왕 때 나를 탄핵했던 언관들은 다 파직됐는데 김여지만이 관직에 그대로 있다”고 한 것이다. 모든 권세가 정도전에게 집중돼 있던 시절이다.

그날로 김여지는 병을 핑계로 사직한다. 어린 나이에 문과 장원을 차지했으니 그의 능력은 특출났을 것이다. 그럼에도 김여지는 정도전에 맞서기보다는 숙이는 길을 택한 것이다. 이로써 그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1차 왕자의 난으로 정도전이 죽자 김여지는 태종의 총애를 받는다. 그는 이래(李來)와 함께 세자 양녕대군의 교육을 책임졌다. 양녕이 폐세자될 때까지 사부로 있었다. 동시에 그는 오늘날의 청와대 비서실장에 해당하는 지신사(훗날 도승지)에 오른다.

그 후 김여지의 관리생활은 외형적으로 순탄했다. 충청도 관찰사를 거쳐 공조판서, 한성부판사(서울시장), 형조판서 등을 거쳐 1425년(세종 7년) 5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실록은 그가 “사람됨이 너그럽고 후하였으며 충성스럽고 근신하여 정승의 틀이 있었는데 크게 쓰이지 못하고 죽어 당시 사람들이 애석해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정승감이었다는 말이다.

여말선초 격변기에 장원급제로 벼슬길 올라
정도전 탄핵했다 밉보이자 몸 낮춰 겨우 연명
1차 왕자의 난 후 태종의 총애로 승승장구
죽기 전에 두 아들에 ‘근신하라’ 유언 남겨

그는 죽기 직전 두 아들에게 〈계자서서(戒子壻書)〉라는 글을 남겼다. 아들과 사위에게 주는 경계의 글이라는 뜻이다. 그중 일부다.

“내가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본받을 말을 알지 못하여 남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할 만한 행동을 많이 했다. 이제 너희들 무엇 하겠느냐? 너희들은 나의 이 말을 거울로 삼아 매사에 경계하도록 하라.”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는, 근신하는 태도를 유언으로 남긴 것이다. 평범하면서도 요즘 같은 우리 사회 분위기에서는 절실하게 다가온다. G 글·이한우 (조선일보 기획취재부장)

산사의 하룻밤… ‘천년의 향기’를 느낀다

김제 금산사 · 고창 선운사, 외국인 템플스테이 상시 운영

전북 김제의 금산사와 고창 선운사가 외국인 템플스테이 상시 운영 사찰로 선정됐다. 템플스테이란 사찰에서 숙박하며 전통 불교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참선 프로그램을 말한다. 참가자는 사찰의 일상을 체험해 보는 것은 물론 내면 수행의 기회도 가질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 불교 문화를 체험하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의 사찰 방문이 증가하고 있다. 전라북도 도청 관광산업과의 템플스테이 담당자 김관식씨는 “템플스테이가 바쁜 삶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며 “외국인 참여 폭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최근의 추세”라고 말했다. 전라북도 내 사찰에서 템플스테이에 참여하는 외국인의 수는 매년 7백여 명 안팎이다.

전북 김제 금산사에 방문한 외국인들이 참선을 하고 있다.

템플스테이의 주요 프로그램은 사찰의 기본예절을 배우는 오리엔테이션과 공양, 예불, 다도 등으로 구성된다. 연등이나 염주 만들기와 같은 체험 프로그램도 빼놓을 수 없는 재미 중 하나다.

기본예절 · 다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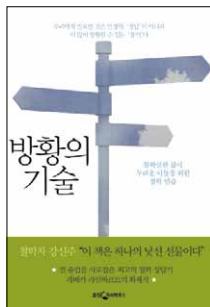
또 각 사찰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이용한 불교문화 체험 프로그램, 지역 사회의 역사·문화와 사찰 고유의 문화를 연계한 한국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사찰 주변 환경에서 환경 의식을 키울 수 있는 생태 체험 프로그램,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한 휴식형 프로그램 등도 마련돼 있다.

1천4백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김제 금산사는 1백8배, 참선, 반야심경 사경, 발원문 작성, 차 만들기, 발우공양 배우기, 스님과의 대화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유명 문화인을 초청해 대화를 나누고 퓨전 국악공연 등 콘서트도 열 예정이다.

고창 선운사는 예불 참여, 명상, 108염주 만들기, 선운산 트레킹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또 매주 둘째, 넷째 주에는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을, 매주 첫째, 셋째 주에는 휴식 위주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앞으로 금산사와 선운사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으로부터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다. 이에 따라 템플스테이가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불교문화 체험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수준이 향상될 전망이다. 전라북도는 앞으로도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해 템플스테이와 인근 관광지, 둘레길 등을 연계해 템플스테이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템플스테이의 1박2일 이용 요금은 7만원 안팎이며, 전라북도 내 사찰 템플스테이 참가자는 2009년 8천40명, 2010년 9천8백여 명에 이어 지난해에는 1만명을 넘어섰다. G 글·김이슬 인턴기자

금산사 www.geumsansa.org ☎063-542-0048
선운사 www.seonunsa.org ☎063-561-1375

〈방황의 기술〉
‘다른 길’에 감탄해 본 적 있습니까

레베카 라인하르트 지음
장혜경 옮김
웅진지식하우스 펴냄 · 1만4천원

묘한 책이 있다. 구성이 성글고 내용도 기대에 못 미치는데 나름대로 가치 있다고 평가할 만한 책, 이런 책은 주로 주변의 평이 좋아 읽어보았는데 읽는 이와 맞지 않거나, 독서수준보다 조금 낮은 차원에서 논의를 펼치는 경우가 많다.

일종의 철학상담서라 할 〈방황의 기술〉이 내게는 꼭 그랬다. 철학상담에 관심 있는 이들이 좋은 평을 해서 읽어보았지만, 그 정도의 내용에는 걸맞지 않은 호평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그럼에도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은근한 메시지가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었다.

이 책의 주제는 제목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방황의 가치를 말하고, 그 방황이 한 개인의 성장에 도움이 될 만한 도움말을 주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방황을 좌절과 동일시했고, 이는 경쟁에서 뒤떨어지는 것을 의미했다. 그런데 지은이는 다른 목소리를 낸다.

“너무 많은 사람이 걸어 반들반들해진 길에서 벗어나보자. 지극히 개인적인 방황을 시작해보자. 용기를 내어 방향을 잃어버리자. 시험 삼아서, 대답보다 질문을 더 많이 던지는 현상을 탐구해보자.”

방황이 한 개인의 성장에 주는 의미 예찬

알고 보면 큰 성취를 일구어낸 이들은 대체로 남이 걷지 않은 길을 갔다. 이 길을 가는 것이 어찌 녹록하였겠는가. 길을 가다 잃어 방황하기도 하였을 터이고, 걷다 주저앉은 적도 있으리라.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갔기에 그 분야의 첫발자국을 남겼을 터다. 방황이 없고서는 이루지 못할 일이다. 그런데 우리는 왜 방황을 예찬하지 못할까?

아마도 당장에 주어지는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다 여겨서일 성싶다. 지은이가 이 책에서 거듭해서 돋을새김하는 이가 바로 오디세우스다. 이 이름은 신화에 나오는 인물의 이름이라는 고유명사이기도 하지만, 모험과 방황이라는 뜻의 보통명사이기도 하다. 무려 10년이나 온갖 모험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집에 돌아오지 않았던가.

지은이는 오디세우스를 “운명이 정해놓은 길을 거역한 유럽 문학 최초의 영웅”이라 치켜세운다. 그러면서 그의 모험담을 요령껏 요약해 놓는다. 오늘의 가치로 보면, 기구한 운명인데다 결코 회복될 수 없는 손실을 본 사람이라 평할 만하다. 과연 그럴까? 당연히 아니다. 지은이는 말한다.

“그는 미지의 인물과 위협적인 존재에게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성장한다. 그 10년 동안의 방황과 표류 없이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더라면 그는 결코 역사에 길이 남을 현명한 영웅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산을 오르다 보면 왕왕 길을 잃어버린다. 위험하다. 하나, 낯선 길은 낯선 풍경을 선물한다. 오랫동안 다녔던 길인데 어찌 이런 풍경이 숨어 있는지 몰랐나 감탄한다. 역설인 셈이다. 길을 잃었더니 새로운 길을 찾으니까.

“방황하다 불안하면 세상과 관계를 맺으라”

그러니 늘 걷던 길에서 내려와 다른 길을 가봐야 한다. 방황이 모험과 같은 뜻인 이유이다. 물론, 무조건 그리해서는 안된다. 지은이의 말대로 오디세우스의 장점, 그러니까 자신과 동료들에 대한 책임감과 “무슨 일이 있어도 한도를 지키는, 즉 절대 자만하지 않는,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되 넘어서지 않는 현명함”으로 무장해야 한다.

방황의 의의와 가치를 오디세우스가 일러주고 있다면, 그 기술을 알려주는 이는 스토아학파다. 방황을 하다 보면 불안해지기 마련. 이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세상과 관계를 맺으라 한다. 용기를 내야 하는데, 이는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면 얻을 수 있다 한다. 삶의 의미는 위기와 실패를 회피하는 것이 아닌 바 “매일매일 현재를 살 것이며, 매 순간을 마지막 순간인 듯, 또한 첫 순간인 듯” 살아야 한다.

이 책에서 너무 많은 내용을 기대할 필요는 없다. 그러기에는 과대평가된 면이 있다. 그럼에도 이 책을 읽고 만약 방황과 모험의 가치를 새삼 깨달았다면,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멈추고 새로운 모색의 시기를 보내는 이가 있다면, 분명히 그 사람에게는 이 책이 최고의 책이 될 터이다.

글 · 이권우 (도서평론가)

쩔쩔매지 않은 까닭

글과 그림 · 최영순

당신은 왜 나를 보고도 못 본 체하는 거요?
기분 나쁘게 ......
엄청 돈많은 부자
다들 나를 보면 쩔쩔맨단 말이오!
당신이 부자든 아니든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제가 왜...?
그, 그럼 내 재산의 반을 주면 굽실거리겠소?
반?
그럼 둘 다 재산이 같아지는데 그럴 필요 없죠.
이, 이런!
그럼 전부 다 주면 내게 아양을 떨 텐가?
허 참 ......
그럼 내가 부자가 되고 당신은 가난뱅이가 되는데 당신이 굽실거려야죠...

부귀는 날개가 달려 금방 날아가버리고 권세는 어느 날 밤의 꿈이라 금방 깨버린다.
- W.쿠퍼(영국의 시인)

다른 모습, 같은 울림 어머니의 삶을 만나다

〈임종진 사진전〉

전시

어머니들의 삶을 기록한 전시가 19일까지 류가헌에서 열린다.

어머니를 주제로 한 사진전이 서울 통의동 류가헌에서 열리고 있다. 언론사 사진기자 출신인 임종진이 〈어머니에 관한 4개의 기억〉이라는 주제로 가슴 따뜻한 전시를 마련했다. 전시는 '어머니, 웃으시다' '살아내시다' '맞서시다' '우리가 벗은 허물'이라는 네 개의 카테고리로 묶인다.

19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50여 점에 달하는 작품이 전시된다. 작가는 나주, 울산, 청양 등 우리나라를 포함해 인도, 네팔, 이라크 등 여러 국가에서 살아가는 어머니들의 모습을 공개한다. 캄보디아의 시골마을에서 사는 어머니, 새벽장터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는 어머니, 필리핀인 며느리를 향해 달려가는 농촌의 어머니 등 어머니의 표상이 담긴 작품들을 볼 수 있다.

이번 전시는 어머니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성들, 즉 사람과 그들의 삶에 대한 기록이다. 사진가가 셔터를 누를 수밖에 없었다고 표현할 만큼 진한 감동을 주는 작품만을 골라냈다. 지울 수 없었던, 오래 묵혀 두었던 어머니들의 삶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다. G

정리·김이슬 인턴기자

일시 2월 19일까지 **장소** 류가헌 **문의** ☎02-720-2010

공연명	장소	날짜	문의
뮤지컬			
겨울연가	명보아트홀	3월 18일까지	1544-1555
미스사이공	울산문화예술회관	2월 12일까지	1544-1555
힐링하트	더굿씨어터	2월 29일까지	02-3673-3770
펀타지쇼	뮤디스홀	3월 31일까지	02-541-0772
안아줘요 무무	소월아트홀	2월 19일까지	1544-1555
연극			
풍찬노숙	남산예술센터	2월 12일까지	1544-1555
영원한 평화	원더스페이스 네모극장	2월 12일까지	1544-1555
죽여주는 이야기	대전 이수아트홀	2월 19일까지	1544-1555
블링블링	대학로 키득키득아트홀	2월 29일까지	02-3673-1590
잇츠유	르메이에르 씨어터	2월 26일까지	1544-1555
콘서트			
투데이 익스프레스	블루스퀘어	2월 10~19일	1544-1591
일디보 내한공연	잠실실내체육관	3월 3일	1544-1555
카라 콘서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2월 18~19일	1544-1555
버벌진트 콘서트	부산시민회관	3월 14일	1544-1555
나는가수다 콘서트	잠실실내체육관	2월 17~18일	1544-1555
공연지신 이승환	창원 3.15 아트센터	2월 18일	1544-1555
김장훈의 꽃서트	블루스퀘어	2월 25일	1544-1555
클래식/오페라			
임동혁 피아노 리사이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3월 2일	032-420-2733
연서	세종문화회관	3월 15~18일	02-399-1090
금난새의 해설이 있는 음악회	제주문예회관	2월 9일	1544-1555
무용			
오페라발레 뮤즈 2012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극장	2월 10~11일	02-3216-11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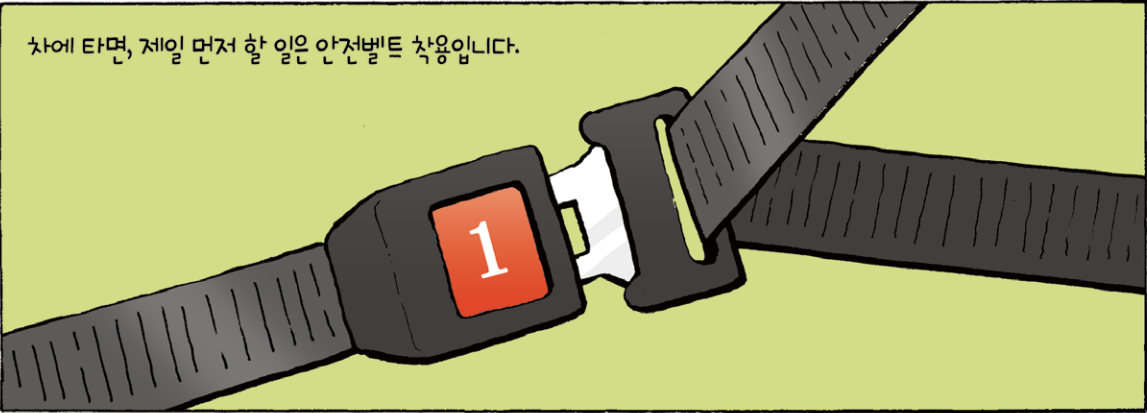
공연 **노트르담 드 파리** 〈노트르담 드 파리〉는 프랑스 문호 빅토르 위고의 〈노트르담의 꼽추〉를 각색한 작품이다. 15세기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을 배경으로 꼽추 콰지모도의 비극적 사랑을 다루고 있다. 이 뮤지컬은 대부분 대사와 극적 전개가 선율로 표현된다는 점에서 오페라와 비슷하다. 대사는 2막에서 딱 한 번 등장한다. 함축적인 가사를 앞세운 노래들도 이 작품의 두드러진 매력이다.

일시 2월 26일까지 **장소** 세종문화회관 **문의** ☎02-541-3182

2월 첫째 주 가온차트 가요 인기순위 (1월 22일~1월 28일)

	곡명	가수
1	이럴 줄 알았어	비스트
2	널 사랑하겠어	효린
3	Lovey-Dovey	티아라
4	시간을 거슬러	린
5	애상	10cm
6	거기서거기(Without You)	다이나믹 듀오
7	베짱이 찬가	써니힐
8	전쟁이야	엠블랙
9	너에게로 간다	원티드
10	미치겠어	틴 탑

冬네 길 안전벨트

구성 | 권우영
그림 | 안종만

서로 시원해야 소통이다

개그는 익살이나 익살맞은 대사를 의미한다. 본디 영어에 있는 말이지만 1970년대에 기존 코미디와 차별을 꾀하던 전유성씨가 발굴해 새롭게 쓰기 시작한 말이다.

전유성, 고영수, 송영길 같은 분들이 1세대 개그맨들인데 어찌나 성공적이었는지 그 후로는 모두 '개그맨'으로 통용되고 있다. 프로그램 제목도 개그콘서트, 개그야, 개그시대, 개그투나잇 등등 개그가 대세를 이룬 지 오래다.

개그투나잇이란 프로그램에는 '한 사장'이라는 꼭지가 있다. 한 사장이 주인공일 것 같지만 주인공의 이름이 아니다. 한 사장은 돈을 빌려간 사람이고 한 사장에게 10년 전에 빌려준 돈 7천9백70원을 돌려받으려고 매번 무대에 등장하는 이가 주인공이다.

"한 사장. 오랜만이야. 10년 만인가? 하나도 안 변했구먼. 정말 반가워. 나 기억하지? 10년 전에 내 돈 7천9백70원 빌려갔잖아. 기억하고 있겠지? 아무렴 한 사장이 그렇게 파렴치한 사람이 아니잖아. 자, 그럼 이제 내 돈 7천9백70원 돌려줘야지. 응, 한 사장!"

문제는 돈을 빌려간 한 사장에게 주인공의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인공이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손사래를 쳐도 한 사장은 본체만체한다.

개그 콩트 '한 사장'의 불통은 차라리 즐거워

"한 사장, 나라니까. 물론 바쁘겠지만 내 돈 7천9백70원은 돌려줘야지. 벌써 10년이나 됐는데, 이제는 갚아야 하지 않겠어? 자, 한 사장, 내 돈 7천9백70원 갚아."

아무리 빌려준 돈 7천9백70원을 돌려달라고 목청을 돋워도 한 사장에게는 우이독경이고 마이동풍이다. 뿐만 아니라 한 사장의 부하 직원들로 나오는 젊은 두 남자에게도 주인공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주인공은 투명인간 취급을 당한다.

"내 목소리가 안 들리냐? 한 사장, 정말 안 들리는 거야? 아니 내가 안 보이느냐고? 한 사장, 내 돈 7천9백70원 돌려 달라니까. 이거 뭐가 이렇게 소통이 안돼?"

결국 주인공은 뭐가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느냐며 분통을 터트리지만 한 사장은 끝날 때까지 주인공을 알아보지 못 한다. 한 사장은 바쁘다. 자신의 일이 바쁘고, 부하 직원들에게 무언가를 지시하느라 바쁘다. 너무 바빠서 주인공의 목소리를 들을 겨를도 없고 주인공을 쳐다볼 여유도 없다. 그래서 주인공과 한 사장은 끝내 소통하지 못한다.

하지만 시청자들은 주인공의 목소리를 잘 듣고 보면서 이 상황을 즐긴다. 한 사장에게는 들리지 않지만 시청자에게는 잘 들린다. 이게 이 콩트의 전략이다. 출연자들 간의 불통을 수단으로 시청자와 소통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한 사장이 주인공의 등장을 의식하고 그 목소리를 알아듣는다면 어찌 될까? 한 사장은 10년 전에 빌린 돈 7천9백70원을 돌려줄 테고, 돈을 돌려받은 주인공이 고맙다며 무대를 떠나면 콩트는 아주 싱겁게 끝나버릴 것이다. 그래서 한 사장의 '불통'은 즐겁고 유쾌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콩트가 불통을 조장하는 것은 아니다. '한 사장'의 유쾌한 불통은 시원스런 소통에 대한 갈망이다. G

글 · 정재환 (방송인 · 한글문화연대 공동대표)